



코스피 2407.62 (+11.06)	코스닥 861.94 (+31.98)
금리(국고채 3년) 2.27 (+0.02)	환율(원-달러) 1087.90 (+1.30) (8일)



[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회적기업연구원 설립
03

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

몰랐던 모로코 손실 3000억 드러나

모로코 현장 기자재 문제
4분기 실적에 반영돼



위기였다. 그러나 전날 대우건설 4분기 실적에서 3000억원 규모의 잠재 손실이 드러나자 상황이 반전됐다. 대우건설은 올 초 모로코 사파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주문·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다시 제작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대규모 손실이 반영됐다. 대우건설의 영업이익도 7000억원에서 43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해외사업 부실이 또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은 카타르·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나이지리아·알제리·에티

오피아·베트남·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수에 들어갔고 예비실사 과정에서 해외사업장을 들여보지 못 했다. 바로 이 때문에 해외사업 경험이 없는 호반건설로서는 부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인수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해외사업 부실 등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인수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연초부터 인수합병(M&A) 시장을 강타했던 대우건설 인수전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대우건설의 새 주인 찾기가 새롭게 진행돼야 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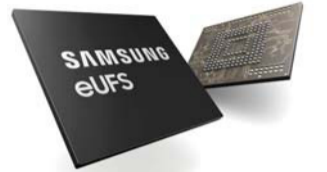
호반건설은 8일 인수 최종단계에서 예기치 않는 대우건설의 대규모 해외사업 부실 때문에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따라서 호반건설은 승자의 저주를 피하게 됐다.

현재 호반건설은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호반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인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지금 발을 빼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사비용과 지분 매각 풋옵션 보증수수료 등은 감당할 부분이다.

지난달 31일 호반건설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만 해도 사실상 인수가 확정되는 분

-40℃~105℃ 견디는 자동차용 반도체 양산



‘256GB eUFS’ 선보여
프리미엄 메모리시장 선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수한 삼성전자가 올해는 자동차 메모리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128GB eUFS(내장 스토리지 메모리)를 양산한 지 5개월 만에 용량을 늘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한 256GB eUFS를 선보였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제품을 시작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차세대 자동차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영하 40~영상 105도 환경에서 작동하는 고용량 자동차용 256GB 용량의 eUFS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구현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여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송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삼성전자 차량용 256GB eUFS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하며 계산, 판단하는 작업을 반도체 칩이 담당해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은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4억9000만 달러에서 2020년 481억2400만 달러, 2023년 584억9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256GB eUFS를 선보이고, 글로벌 자동차 및 전자 업체에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선보인 256GB eUFS의 내열성을 -40~105℃까지 확장했다. 기존 eMMC 5.0(임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는 저장 모드의 경우 -40~85℃, 읽기모드는 -25~85℃까지 보증한다.

만약 설정된 온도 이상이 될 경우 온도감지 센서가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 신호를 전달해 온도를 낮추는 솔루션으로 자동차 시스템 안정성을 높였다.

<2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1cindium@



활짝 웃는 남북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예진, 이유빈이 8일 오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북한 정광범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전도사’ 신동빈, 민간 스포츠 외교 펼쳐

(롯데그룹 회장)

스키협회장으로 경기참관 등
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 상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 일대에 상주하면서 민간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친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비롯해 알파인스키, 스키점프, 스노보드, 모글, 크로스컨트리 경기 참관 등을 위해 15일 이상을 평창 일대에 머물 예정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신회장은 스키협회장으로서 대회를 참관하고 선수들과 코치,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스키연맹(FIS) 관계자 등 국내외 귀빈을 만나며 스키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대한스키협회 회장에 취임한 신동빈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왼쪽), 세계스키연맹(FIS) 지양 프랑코 카스퍼 회장. /롯데그룹

위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2년여 앞둔 2016년부터 신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강원도 평창 일대와 정선의 스키 경기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테스트이벤트 대회 등에 대부분 참석하며 밤 늦게까지 경기를 관람하고 시상식도 참석했다. 또한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지양 프랑코 카스퍼 FIS 회장, 사라 루이스 FIS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신 회장은 무박 출장 등 몸을 사리지 않고 해외 주요 행사를 찾아다니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6년 6월 FIS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FIS 집행위원회 회의에 1박 4일 일정으로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현황과 교통, 기온, 강설 등 올림픽 준비 컨디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FIS 지양 프랑코 카스퍼 회

장, 사라 루이스 사무총장과 16명의 FIS 집행위원에게 해외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 회장은 “많은 안전 훈련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신 회장은 10대 기업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롯데는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스키협회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도자 및 해외 전지훈련을 대폭 늘리고, 포상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과 스키종목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실상 종목의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올림픽 이외에도 유스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주니어 세계 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박인우 기자 parkiu7854@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올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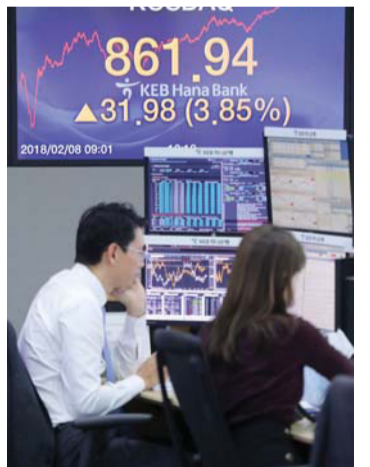
31.98p 오른 861.94에 장종료

코스닥 선물시장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됐다. 지난달 12일 이후 올들어 두 번째다.

한국거래소는 7일 오후 2시 44분 경 코스닥150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돼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시장의 급등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날 코스닥은 사이드카 발동 후에도 상승추세가 계속되면서 전날보다 31.98(3.85%) 오른 861.94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830선까지 추락했던 주가가 단숨에 회복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 상승세는 기관이 이끌었고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에 동참했다. 이날 기관과 외국



코스닥, 31.98p(3.85%) 오른 861.94에 장종료.

인은 각각 621억원, 64억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139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아울러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폭 올랐다. 셀트리온(6.02%), 셀트리온헬스케어(8.58%)와 셀트리온제약(9.31%) 등 셀트리온 3종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신라젠(8.91%), 포스코켄텍(6.19%), 스튜디오드래곤(5.88%) 등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文, 10일 김영남·김여정과 오찬

오늘 北 고위급대표단 인천공항 통해 방남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김여정(사진)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10일 오찬을 한다.

오찬 장소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0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김여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일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이날 낮 1시30분에 인천공항에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꾸려져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한다.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당시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할 때도 '김정은 전용기'를 통해 서해 직항로로 왕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1면 '-40℃~105℃ 견디는 자동차용...'서 계속

국제표준회 규격 최고수준 성능

여기에 반도체 국제표준화기구(JEDEC)의 UFS 2.1 규격에서 최고 수준 성능인 연속 읽기속도 초당 850메가바이트(MB/s), 임의 읽기속도 4만5000IOPS(초당 입출력 처리)를 구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새로운 셀에 옮기는 데이터 리프래시 기술로 처리 속도 역시 높였다.

JEDEC은 1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해 특허 출원한 온도감지 기술과 데이터 리프래시 기술을 차세대 USF 3.0 규격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전자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업계 최대의 eUFS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프리미엄 자동차 메모리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한줄 News

정책·사회

▲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가 연령대별로 달랐다. 20~30대는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을 압수 수색했다.

산업

▲ 유진로봇은 8일 을지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카트를 시연하며 물류로봇 사업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출시 2주년을 맞은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 OTT(Over The Top) 서비스 '옥수수'가 사용자환경(UI·UX) 개편으로 얼굴을 바꾸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부동산

▲ 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이 3조원을 넘어섰다. 신한금융지주에 빼겼던 리딩금융 그룹 자리도 9년 만에 되찾았다.

▲ 동계올림픽 등으로 속도 조절 중이던 건설사들이 설 이후 ~ 3월까지 대거 분양에 돌입한다.

유통

▲ 홈쇼핑업체가 지난해 온라인쇼핑(모바일+PC), T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내놨다.

▲ 2명중 1명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부모님께 약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즉구(즉시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80조 투자해 신시장 창출 머리 맞댄다

일시: 2018. 2. 8(목) 장소: 더 플라자 오키드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 공동선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백운규 장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이도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연합뉴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간담회 2조 규모 상생발전출범 대·중소기업 좋은일자리 창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추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업계는 2조원 규모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8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상생발전 공동선언 ▲대학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지원 ▲기술유출

방지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획기적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성능 1000배, 전력소모 1/1000배를 목표로 기존의 실리콘보다 효율성이 높은 탄화규소(SiC), 텔루라이드(GS

T), 질화갈륨(GaN) 등 신소재에 대한 상용화 기술연구를 추진하며 공정 측면에서 나노 단위를 초월하는 극미세 공정기술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20% 이상 신축이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사용량 60% 절감 및 공정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는 프린팅 방식의 생산체계 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창출과 관련하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가전, 엔터

지, 바이오, 기계 등 5대 수요분야와 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표준, 해외진출 등 핵심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월드챔프 소재·장비 기업을 육성하고 후방산업 경쟁력을 근간으로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2조원을 투자하는 '상생협력 2.0'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 자금을 1조 원 이상을 대출 지원하고 정부와 대기업 1:1 매칭을 통해 석박사 인력 2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성장·인수 합병(M&A) 지원을 위한 '반도체 성장펀드'를 2019년까지 투자완료하고 이후 20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MOU)가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연봉 10억대 오너일가 CEO, 보수 중 84%는 성과와 무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수 책정기준 공시 필요

1년에 5억원 이상을 받는 지배주주(오너) 일가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연봉의 대부분을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최고경영자 보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비금융 회사의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위원 가운데 2016년에 퇴직금을 제외한 총보수가 5억원 이상인 CEO는 263명으로 전년(221명)보다 19% 늘었다.

이들 가운데 지배주주 일가는 126명이고 전문경영인은 13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2억5000만원이었는데 지배주주 일가는 평균 13억9000만원을, 전문경영인은 평균 11억3000 원을 각각 받았다.

결국, 오너 일가 CEO의 연봉이 전문경영인보다 약 2억6000만원 더 많았다.

조사 대상 CEO가 받은 보수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변동상여' 비중은 25.8%였다.

나머지 4분의 3은 성과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급여와 고정상여, 기타 소득 등이다.

특히 지배주주 일가는 보수에서

변동상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4%로 전문경영인(26.7%)보다 훨씬 더 낮았다.

성과와 무관한 보수 비중이 전문경영인은 73.3% 정도인 데 비해 지배주주일가는 83.6%라는 얘기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방문욱 연구원은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CEO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보수의 비중은 11% 정도인 데 비해 국내 상장사는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방 연구원은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CEO는 변동상여 비중이 더 낮고 이들 중 변동상여가 아예 없는 경우

도 37%에 달한다"며 "이는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어려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경영자의 보수 기준이 공시되고 주주들이 이에 대한 의견도 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이후에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CEO 보수가 공시되는 등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방 연구원은 "기업들이 CEO 보수와 책정 기준 등 정보를 주총 전에 이사보수 한도 안건과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

정부, 수산자원 회복에 590억 투입... 바다숲 3100ha 조성

해수부·수자원공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바다목장 5개소 등 착공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목장 5개소와 바다숲 3108ha를 조성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년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과 관련하여 ▲바다숲 조성·관리 ▲수산자원 증대(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 운영



바다목장 조성해역 수중 모습.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등 5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2009년부터 추진된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현상으로 사막화되어 가는 바닷속에 해조류·해초류를 직접 심거나, 바다숲을 보호·보전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동·서·남해 및 제주 해

역에 총 20개소, 3108ha 규모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시마·감태·잘피 등을 적극 활용해 바다숲의 자생력과 생물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2006년부터 추진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바다에 인공적으로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

로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조성했다.

올해에는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바다목장 5개소를 새롭게 착공한다.

각 바다목장별로 인공어초를 활용해 어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춘 주요 수산자원 양류 및 모니터링 등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안산 풍도에 조성되는 바다목장에는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완현해수부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회복은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실현하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경기개선·정부일자리 정책 등 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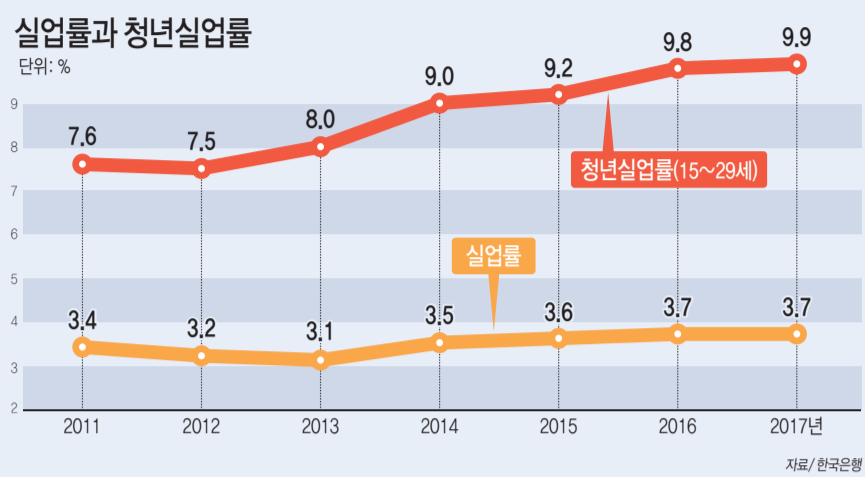
서비스업 발목 잡힌 韓...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 대두

고용탄성치 6년간 지속적 감소세
제조·건설업 보다 서비스업 부진
청년 실업률 10%... 6년간 늘어

국내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등 최근의 긍정적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000명으로 지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2년 19만명에서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000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용탄성치가 큰 서비스업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12만5000명으로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800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3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

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하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 등으로 쪽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노동집약적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이 더딘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1월 의복, 인쇄, 가죽제품 등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은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이들이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다만 앞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업황이 개선될 것이라 분석했다.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2월)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투자 '호조' 지속되는데... 1400조 가계부채에 '소비 절벽'

3개분기 동안 소비 2.3% 증가 불구
한은 "원리금 부담에 회복 더딜 듯"

지난해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차주별 상환 부담으로 인해 국내 소비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출 및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주요국의 완만한 금리인상, 확장적 재정 운용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수출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과거 경기회복기 평균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만은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다.

소비는 지난해 3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2.3%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회복기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 1989년 이후 6차례 경기 회복기 때는 같은 기간 최저 3%(2005년 2분기 이후), 최고 10% 이상(1998년 3분기 이후)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세계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 회복기가 글로벌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 강도가 더 강하고

기간도 길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6번 중 4번이 세계 경기회복 국면과 일치했다.

한은은 또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충격이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했다.

과거 글로벌 경기회복기에는 주요국이 완화정도 축소에 나섰고 정책기조 전환 후에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했다.

한은도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후에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정부 중기재정계획을 살피며 재정정책이 당분간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이는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전 경기회복기에는 대체로 긴축재정 정책을 펼쳐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높아지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경기회복기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수출과 투자확대가 경기를 끌어올렸으며 소비는 회복이 완만하고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이 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 국면 진입 후 시차를 두고 오름세가 확대됐고 경기수축 국면 전환 후에도 일정기간 흐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민간신용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도 대체로 동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 착한생활비Plus 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보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디지털 금융으로 편리하게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액적 사고 및 2년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5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신청 시 생활자금이 지급될 때마다 사망보험금이 감액되며, 해지환급금이 줄어듭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794호 (2017. 2. 28.)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보험 | 신한생명

文, 올림픽을 경제외교로... 일자리·바이오 협력 확대

독일-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스위스-보건·생명과학 중심 교류
폴란드-기업 진출 위해 공조 확대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스위스와는 빅데이터, 보건산업, 생명과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폴란드와는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프라, 에너지 분야 공조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알렉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을 공식 방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번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낮 청와대 본관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독일 평화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제안했었는데 이것이 결실을 보아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리에게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에 이르는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앞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덧붙였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베를린 연설을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더군다나 단일팀으로 참석하게 됐다. 이렇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단일팀 구성에 동의한 것은 올림픽 평화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작은 의지라

고 볼 수 있다"면서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 측에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 보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가진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베르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출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스위스는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선 (스위스를)배울 점이 많고 협력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간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베르세 대통령도 "한국과 스위스 간 경제 협약 등을 현대화하면서 경제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스위스는 연구, 교육에 관심이 많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엔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2018~2019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co.kr

국민의당 통합 '활시위'는 떠났다

安·劉, 공동행보하며 홍보 총력전

국민의당이 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짓는 전(全)당원투표를 시작하며 통합 '초입기'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투표의 참여·찬성을 독려하는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정당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9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10일 ARS 투표 등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사흘간의 투표를 통해 참여당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11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하고, 13일 통합 전당대회 격인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통합신당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에서 당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이 절대적이라는 게 국민의당 내부의 목소리다. 또한 통합반대가 창당한 민주평화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컨벤션효과' 측면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 전당원투표에 27만1228명의 당원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한 분도 빠짐없는 참여로 당의 견제함을 보여주고, 모든 국민이 집중하는 흥행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변화가 시작된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변화에 함께 해달라"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거대 양당을 압도하고 거대한 변화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유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에서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앞서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 당명이 적힌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부산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 대표는 "작년 9월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서 한 적 있다"며 "그 때 제가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비전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바로 정의로운 부산, 발전하는 부산, 안전한 부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가 뭘까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9월에 말씀드린 그 비전과 똑같다. 바른미래라고 하면 정의로운 미래, 잘사는 미래 그리고 안전한 미래 아니겠나. 그게 바로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초 통합신당의 규모를 최대 33석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통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13명의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평화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추가적인 의석 감소와 당내 혼란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등을 강조해왔지만 이미 퇴색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국민의당 갈등 문제로 예전 선거에서 만큼의 선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與, 임시국회 '보이콧'...냉전 장기화

여야, 여전한 입장차 파행의 본질
보이콧 반복에 자성 필요 목소리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면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상임위원회 공식불참을 통보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보이콧을 시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여당의 사퇴 요구와 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등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과 민생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파행의 본질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게다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는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매 국회 때마다 충돌하며 보이콧 사태가 반복되자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이날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일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흑한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국회

유리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의 의혹과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고, 임기도 마르기 전에 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 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됐다"며 "김여정에게 핵 폐기만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檢 '채용비리 의혹' 은행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수사선상에 오른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내 행정실과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서버를 들여다보고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하나은행 인사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로, 검찰은 이중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과 하나카드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도 이날 부산 남구 문현

동 부산은행 본점에 검사 1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인사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부산은행 본점 외에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관계자 사무실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도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광주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채용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류 검토작업을 끝낸 뒤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무리한 추진이 무산 불러와... 대우건설 매각 미궁 속으로

대우건설, 기업가치 떨어져
산은, 손실·부담 더욱 커져
해외사업장 부실에 매각 난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대우건설 본사.

/연합뉴스

대우건설의 주인 찾기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최종 포기하자 대우건설,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매각 이해당사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우선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이 중환자실에 있는 처지”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8일 산은 관계자는 “아직 호반건설의 인수 포기 공문을 받지 않았다”며 “호반건설의 인수 포기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로 당분간 시기, 방법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매각 실패로 대우건설의 기업가치가 떨어져 산은으로서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많다”며 “산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해외사

업 부실이 다 드러나고 흑자경영이 이어진 다음에야 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산은은 대우건설의 흑자 전환을 계기로 지난해 말 조기 매각을 서둘렀다.

이에 산은은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 특혜 논란, 노조의 반대 등 시장의 반발을 샀다. 자체 혁신안의 ‘시장가 매각·신속매각 원칙’에 따라 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번 불발로 매각 보류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번 매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산은은 국내외 잠재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매각중간사를 선정, 매각 공고를 내자 호반건설이 단독 응찰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게다가 헐값매각 등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호반건설은 위험 요소 대신 내실경영을 선택, ‘승자의 저주’를 피하게 됐다.

대우건설 역시 “해외 건설에 발목을 잡힐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당초 호반건설 매각에 반대했던 대우건설 노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 어정쩡한 상황에 빠졌다. 최근 호반건설이 최종 매각 대상으로 선정되자 불편한 표정

을 드러내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대우건설 매각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나서려는 업체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아직 대우건설은 카타르·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나이지리아·알제리·에티오피아·베트남·싱가포르 등 해외사업장에서의 부실이 또 드러날 수 있어 당분간 매각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대우건설의 처지가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다. 대우건설은 그룹 해체 후 2006년 자산관리공사 보유 지분이 금호산업에 6조6000억원에 매각됐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2010년 산은에 다시 지분을 넘기면서 대우건설은 산은 관리하에 들어갔다. 산은이 사모펀드인 KDB 벨류 제6호 유한회사를 통해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보유 중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넷마블, 넥슨 제치고 게임업계 평정

10년 만에 바뀐 매출 기준 1위
엔씨소프트, 연매출 2조 코 앞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국내 게임업계 ‘3N’의 질주가 가파르다. 특히 넥슨과 넷마블게임즈는 지난해 연간 매출 2조원 돌파를 달성하며 ‘2조 클럽’에 진출했다. 엔씨소프트도 1조 7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연 매출 2조를 코앞에 뒀다.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넷마블게임즈는 넥슨을 제치고 매출 기준 최정상에 올랐다. 게임업계 매출 순위 1위가 바뀐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3N의 경쟁은 매출 규모가 늘어나며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N의 매출 합산은 6조4800억원에 이른다.

◆‘3N’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매출 순위 변동도

넥슨은 8일 지난해 매출 2조2987억원, 영업이익 8856억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각각 28%, 123% 성장했다고 밝혔다. 넥슨이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매출에서 넷마블에 소폭 밀렸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1조511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넷마블의 5096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앞섰다.

이번 분기 실적은 중국 ‘던전앤파이터’의 지속적인 흥행과 ‘AxE(엑스)’, ‘오버히트’를 포함한 한국 모바일 게임의 성

과가 견인했다. 최근 인수한 픽셀베리 스튜디오의 대화형 스토리텔링 게임 ‘조이스’도 힘을 보탤다.

넷마블은 지난해 매출 2조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원, 당기순이익 3627억원을 기록하며 연 매출 2조원 시대를 열고 넥슨을 제쳤다. 특히 4분기 해외 매출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영향으로 4181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넷마블은 전체 매출의 54%, 총 1조3180억원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렸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 1조7587억원, 영업이익이 5850억원, 당기순이익 443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엔씨소프트 실적은 ‘리니지M’ 등 모바일

게임이 견인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난해 모바일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모바일게임의 실적은 회사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했다.

◆향후 3N 전략은?...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3N은 향후 차별화 된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견고한 실적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넥슨은 올해 라이브 서비스와 차별화된 게임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리니지2레볼루션’을 통해 올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미, 아랍시장에도 진출해 장기 흥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 6일 열린 제4회 ‘NTP’에서 ▲플랫폼 확장 ▲자체IP 육성 ▲AI 게임 개발 ▲신 장르 개척 등 4가지 방향으로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을 겨냥하겠다고 밝혔다.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올해에도 넥슨은 라이브 서비스와 새롭고 차별화된 게임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오픈월드 MMORPG ‘야생의 땅: 듀랑고’를 성공적으로 론칭했으며 한국 시장에서 흥행을 지속하고 있는 ‘오버히트’의 글로벌 시장 출시와 픽셀베리 스튜디오의 글로벌 유저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넷마블과 넥슨에 이어 연매출 2조 클럽에 도전한다. 윤재수 CFO는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게임도 개발 중이며, PC 타이틀은 콘솔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게임을 단기간에 출시하기보다는 임팩트 있는 게임을 내놓아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A(인수합병)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인 기자 silkni@

謹賀新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8배 높은 흡수율로 더 강력해진 「베콤씨 액티브」

베포타이민 성분으로 8배 높은 흡수율(타이민다실피드 대비)

육체피로 / 관절통 / 신경통 / 눈의 피로 / 근육통

인터넷 약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최태원 “사회적기업연구원 만들어 사회적가치 창출 기여”

(SK그룹 회장)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서 ‘기업의 역할’ 연설 “사회적 기업 운영...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앞장”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GEEF)’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 참석,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가난과 불평등, 환경오염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에 반영,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 ▲인프라의 공유 ▲사회적기업과 협력 등 SK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측정하고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을 시도하는 것이나 SK 주요 관계사 정관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가한 것 모두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SK 자산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사회가 SK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공유인프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 전문가인 사회적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아느냐”며 돌발 퀴즈를 냈다. 객석에서 한 청중이 아이돌 그룹 ‘빅뱅’이 때는 가방이라고 답하자 최 회장은 “정확히는 방탄소년단으로, 사회적기업 모어댄이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모어댄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자동차 가죽 시트 등을 활용, 가방과 지갑 등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 그 가치에 비례해 보상해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PC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구하는 재단을 올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 ‘사회적기업연구원(가칭)’으로 출범할 이 재단에는 내부 사회공헌 전문인력과 함께 외부 자문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끝으로 “SK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니 더 많은 영리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가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생태계 보호 등 글로벌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최근 사회적 가치를 경영 키워드로 삼고 있는 최 회장을 발표자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글로벌 인사와 각계 전문가와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도 50대

생명-현성철·화재-최영무 사장 내정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일 오전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현성철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최영무 자동차보험본부장을 신입 사장으로 내정했다.

두 사장 후보 모두 50대로 지난 삼성그룹 인사에서 강조된 60대→50대로의 세대교체에 따른 분위기 쇄신이 단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I에서 구매전략팀장과 마케팅실장 등을 지낸 후 지난 2011년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거쳐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내정자는 고려대 식물보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화재 인사팀장과 전략영업본부장, 자동차보험본부장(부사장)을 지냈다.

두 사장 내정자는 내달 말 주주총회를



현성철 삼성생명 신입 사장 내정자 / 최영무 삼성화재 신입 사장 내정자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선 그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한 50대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당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의 사장직을 맡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인사로 인해 원 사장은 당분간 삼성카드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한 원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LG사이언스파크, 창의 발휘 공간 될 것”

구본준 LG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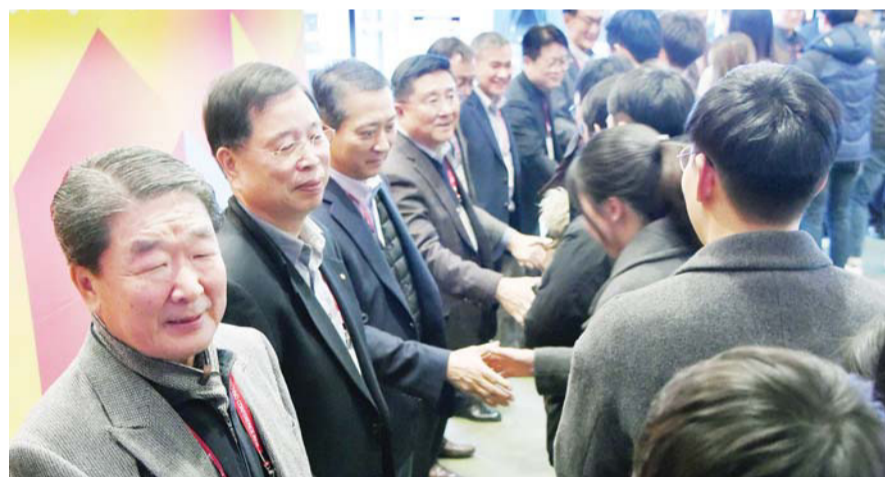
‘LG 테크노 콘퍼런스’ 참가

구본준 LG 부회장은 지난 7일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세계 수준의 융복합 R&D 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는 최고의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하며 창의를 발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LG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인재 37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회장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융복합의 빠른 진화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R&D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LG와 함께 고객의 삶을 바꾸고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구본준 LG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석박사 인재들과 악수하고 있다. /LG그룹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LG 테크노 콘퍼런스’는 우수 R&D 인력 확보를 위해 LG 최고경영진이 직접 인재들에게 회사의 기술혁신 현황과 트렌드, 미래 성장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 CNS 등 7개사 CEO와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80여명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과징금 5억

공정위, 前 대표이사 등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밀어내기’를 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과 부사장 등 퇴직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서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

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 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탈색·제모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식약처장에 건의

중소기업계가 탈색, 제모, 피부 건조 완화 등에 쓰이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건의했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고령자용 식품’ 개발을 위한 기존·규격 마련도 요청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 인허가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류 처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회장은 “인공지능(AI)·의료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염모제, 탈색·탈색제, 제모제, 탈모증상 완화 및 여드름성 피부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제품 5종,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 완화 및 탄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2종 등 총 7종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조·수입 전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자료 제출면제 등 심사가 간결하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기능성화장품들은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이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나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성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와 자료 축적 후 고시를 공포해 회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요구다.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맞춤형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식품업체가 관련 식품 개발이나 제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



KB 금융그룹

여행준비로 바쁠 때, 환전만큼은 편하게 **배달받자!**

KB-POST 외화배달 서비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외화 배달을 해주고
추가로 환전 우대 혜택까지!
이젠, 바쁘게 환전하지 말고 **KB 외화배달** 받으세요



Click 한번으로 환전한 외화를 집(직장)에서 받자!

신청방법: 인터넷(KB스타뱅킹, 리브(Liiv), 스마트 상담부☎1800-9990)에서 환전신청
* 배송 지역: 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8년 하반기 전국 확대 예정)

EVENT 1 Click만 해도, 누구나 **배달수수료 전액면제 혜택!**

EVENT 3 추첨을 통한 모바일 커피 상품권 증정!

EVENT 2 Hot하게~ 환율우대 최대 50% 혜택까지!

* 이벤트 기간 내 신청금액에 따라 환율우대 최대 50% 제공

■ **이벤트 기간:** 2018. 1. 8(월) ~ 2. 28(수)

구분	내용	대상
경품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상품권 5천원권	200명
경품북	면세점(롯데, 갤러리아, 두산, 시티), 공항철도, 휴대용 Wi-Fi할인권	모든 고객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VENT 3에 대한 추첨은 난수 추첨 방식으로 별도 참여 없이 자동응모 처리되며, 1인당 1회만 응모됩니다.(EVENT 간 중복 적용 가능)

※모바일 커피 상품권은 별도 통보 없이 2018년 3월 19일(월)에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수탁업체(주쿠프마케팅)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 발송업무를 위탁합니다.

[제공범위: 휴대폰 번호, 대상업무: 이벤트 경품 발송]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5호(2018.01.31)



두 살 된 '옥수수', 콘텐츠 투자 늘려 넷플릭스에 맞짱

(SK브로드밴드의 OTT서비스)

SK브로드밴드

모바일 OTT 서비스 새 단장
UI UX 개편·콘텐츠 투자 확대
머신러닝 기반 AI 기술 도입

출시 2주년을 맞은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 OTT(Over The Top) 서비스 '옥수수'가 사용자환경(UI·UX) 개편으로 얼굴을 바꾸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옥수수 이용자들은 각자 콘텐츠 성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홈 화면을 접하고 개인의 콘텐츠 시청이력을 기반으로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OTT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인터넷 기반의 영상 서비스를 통칭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체 콘텐츠를 강화한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플랫폼과



개편된 SK브로드밴드 '옥수수' 홈 화면.

/SK브로드밴드

콘텐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OTT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김종원 SK브로드밴드 모바일사업본부장은 8일 서울 을지로에서 설명회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콘텐츠 접근성 강화라는 두가지 축으로 옥수수의 UI·UX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개편 핵심인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은 고객의 콘텐츠 이용 성향을 학습해 콘텐츠 추천 정밀함을 높인 게 특징이다.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최근 주요 동영상 서비스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분석형(MF)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유무료 여부, 평점, 시청 횟수, 시청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콘텐츠에 순위를 매겨 개인 성향에 맞는 정확한 추천이 가능해졌다.

옥수수 접속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홈 화면 메뉴 구성도 홈, 랭킹, MY로 간소화했다. 메뉴 선택 과정도 최소화하고, 비슷한 성격의 메뉴는 통합해 콘텐츠 찾기가 수월해졌다.

수요일에는 아트무비, 토요일에는 슈퍼비라는 마케팅 타이틀을 걸고 무료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마케팅 콘셉트도 선보인다. 늘어나는 2030 젊은 타겟을 겨냥해 고객 유입을 하기 위한 전략이다.

콘텐츠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정착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대적할 계획이다.

김종원 본부장은 "모바일 동영상 소비는 TV와는 달리 내가 좋아하는 배우, 주제, 웹툰 등을 구독하고 소통하는 팬덤이 기반이 된다"라며 "SK텔레콤이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SM과 SBS·JTBC와 같은 방송사, 웹툰 보유사와 제작 협력을 해 미디어 생태계의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옥수수는 지난해에만 총 30여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해 누적 6000만 뷰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전에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글

로벌 시장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트래픽 소비량도 지난해 대비 2.5배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 연동 작업도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이번 UI·UX 개편에는 지난 2년간 옥수수를 운영하며 축적한 고객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담아왔다"며 "앞으로도 옥수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모바일 동영상 트렌드를 주도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옥수수는 2016년 출시 당시 국내 시장점유율 4위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유튜브에 이어 2위로 상승했다. 시청 시간도 출시 당시 3억 5000만분에서 13억8000만분으로 늘어났다. 총 시청 건수는 현재 1억300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순수 사용자(MAU)는 700만 도달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분리·결합 자유로운 '모듈형 공기청정기' 첫 선

삼성전자 '삼성큐브' 설명회

초순도 청정 시스템 제공
올 시장점유율 60% 목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위해 상황과 용도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에 청정 기능을 한층 강화한 '삼성 큐브'를 선보였다.

올해는 이 제품을 필두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을 최대 60%까지 높일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전자에서 '모듈형 공기청정기 삼성큐브' 설명회를 가졌다. 삼성 큐브는 ▲강력한 필터 성능 ▲바람과 소음 없는 청정 ▲공간에 따라 가변성 높은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품이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신제품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를 체험해보고 있다.

/삼성전자

특히 이 제품은 모듈형 디자인이어서 소비자들은 2개의 모듈을 상황과 용도에 따라 분리 또는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낮에는 넓은 거실에서 2개의 제품을 결합해 대용량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분리해 안방과 자

방에서 나눠서 개별로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자체 조사 결과, 사용자 65%가 하루에 1회 이상 제품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욕구에 맞춰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모듈당 무게는 10~12kg로 폴리카보네이트 등 소재로 내구성을 높였다. 1년에 300번 결합과 분리를 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내구성을 확보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기청정 성능도 강화했다. 삼성 큐브는 0.3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초순도 청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10만개의 먼지가 필터를 통과할 때 1개의 먼지만 빠져나갈 정도의 수준이다.

또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소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무풍 청정' 기능을 도입했다. 공기가 나쁠 때에는 쾌속 청정으로 오염된 공기를 강력하게 정화하고 실내 공기가 ' 좋음' 상태로 유지되면 자동으로 무풍 청정

운전으로 전환된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인석진 상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기청정기 시장이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희도 삼성큐브를 통해 큰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한국영업 담당 김현중 부장은 "지난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약 100만대 규모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기청정기 판매량(겨울시즌)이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목표 판매량이 20% 정도 예상했지만 지금은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에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차지했다면 올해에는 삼성 큐브로 50~60%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목표"라고 강조했다.

삼성 큐브는 청정 면적(47~94㎡), 결합유무, 필터 구성에 따라 총 7개 모델로 출고가는 80만~200만원이다. 오는 19일 공식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삼성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카카오, 신성장동력 발굴에 1조 쏜다 "물을 연구합니다"... 정수기 기술향상 매진

작년 연간 매출 1조9724억

올해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

카카오가 지난해 연 매출이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연간 매출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신사업 영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1조9724억원, 영업이익 1650억원, 순이익 1275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35%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2%와 95%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4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카카오는 작년 2분기(4684억원)를 시작으로 3분기 연속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매출을 이끈 것은 간판 사업인 음원, 게임,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콘텐츠 부문이다. 지난해 콘텐츠 플랫폼 매출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9854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와 비교해 약세로 지적됐던 디지털 광고는 2016년 대비 매출이 12%가 늘어난 5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와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되는 기타 부문은 커머스 매출 증가와 로엔의 매니지먼트 매출 증가에 따라 3911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7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의 신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스피커 '카카오미니'는 지난해 10월 판매 이후 8만대가 완판됐고, 주간 사용률은 90%에 달해 전세계 AI 스피커 중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카카오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가입자도 지난해 4분기 기준, 2120만명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6% 증가했다. 지난달 출시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30만장 발급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올해 공격적인 투자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주식예탁증권(GDR) 상장으로 확보한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날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국내외에서 카카오 본사 및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로엔엔터테인먼트처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M&A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M&A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LG전자

경남 창원에 '물과학연구소' 설립
연구개발 핵심기술 정수기에 도입

LG전자가 정수기 사업 확대를 위해 물(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과 함께 별도의 '물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연구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LG 퓨리케어 정수기'에 도입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확대에 발판이 될 예정이다.

LG전자는 8일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 R&D센터에 물과학연구소 열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대현 H&A사업본부장 사장, 박영일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 부사장, 이현욱 정수기사업담당 상무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물과학연구소는 물 관련해 전문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국가가 공인한 수질검사기관이기도 하다.

LG전자는 물과학연구소 오픈 전 국가 표준기본법 및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 능



LG전자 연구원들이 '물과학연구소'에서 필터, 위생, 수질 등 물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LG전자

력과 시험 환경을 평가 받고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을 획득해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됐다.

이곳에는 물 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한 LG전자 연구원들이 상주한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하면서도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물 속 유해성분을 제거하는 필터는 물론, 생산부터 사용 단계까지 제품의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한다.

또 전문 교수진과의 연구개발도 진행한다. LG전자는 연세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의 국내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과 차세대 필터, 위생 솔루션, 정밀 수질 분석 등에 대해 연구개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LG전자는 이곳에서 연구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LG 퓨리케어 정수기 제품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환자 피해 이리저리 짐나르는 ‘고카트’, 병원의 새 ‘명물’

고카트·고카트미니 현장에 투입 자체개발 ‘D-SLAM’ 솔루션 적용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병원에는 빨간 로봇이 종횡무진 건물을 누빈다. 을지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유진로봇의 물류로봇 ‘고카트’를 도입해 실제 현장에 투입한 것.

8일 유진로봇은 을지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카트를 시연하며 물류로봇 사업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카트는 병원, 공장, 공장 등 넓은 공간에서 공간을 인식해 스스로 움직이는 물류로봇이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진로봇 박정수 부사장은 “병원, 공장, 창고 등의 특징은 공간이 넓고 물건을 이송하다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고카트의 활동 무대를 설명했다. 고카트가 이들의 단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을 IoT로 제어하며 층수에 상관없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왜 첫 무대가 병원이 됐을까. 박 부사



을지대병원 의사들이 유진로봇의 물류로봇 고카트 미니와 함께 걷고 있다. /오세성 기자

장은 “병원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다양한 물류 활동이 이뤄진다. 이를 로봇이 처리한다면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환자를 돌본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에는 120kg 하중의 짐을 옮기는 고카트와 10kg급 고카트 미니가 배치됐다. 고카트는 병실 이불보 등 린넨, 음식물, 폐기물 등 무거운 짐을 옮기고 고카트 미니는 혈액 샘플, 음료 등 가벼운

물건을 나른다.

병원에서 만난 고카트는 채혈실에서 채혈박스를 받아 진단검사실로 옮기면서도 직원들이 요청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다. 오르막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씩 멈춰 고민하면서도 곧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층을 지정하며 진단검사실과 채혈실을 오갔다. 갑자기 앞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발견할 때는 멈춰다 움직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 탈

공간이 부족할 때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미덕’도 보였다. 이날 고카트는 오전에 4개, 오후에 4개 스케줄을 소화했다.

을지대병원 김승민 교수는 “레지던트 시절, 엑스레이 필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보면, 한두 개씩 분실해 당황했던 적이 있다. 그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잃어버린 필름을 찾아나서는 동안 제대로 진료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고카트가 업무를 대신해 물건을 흘리거나 흘린 물건을 찾는 등의 수고를 덜게 됐다”고 사용소감을 밝혔다.

병원에 로봇을 도입하는 일에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병원 내에는 많은 사람이 돌아다닌다. 로봇이 움직이다가 사람과 충돌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엔 진단검사실 안에서만 작동시켰고 이후 진단검사실과 채혈실 사이를 돌아다니게 했다. 사람을 알아서 피하고 멈추는 덕에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이제는 병원 곳곳을 고카트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고 말했다.

유진로봇 박 부사장은 “경쟁사 물류로봇들은 모두 2D 센서 기반으로 특정한 공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사람

이 없거나 통제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작동하는 반면, 고카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개방된 공간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D-SLAM’ 솔루션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유진로봇이 자체 개발한 D-SLAM 솔루션은 복수의 카메라를 사용해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유진로봇의 경우 해당 센서 비용도 경쟁사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다.

박 부사장은 “내달 밀레 브랜드로 신형 로봇청소기가 출시된다. 이 제품에도 D-SLAM 솔루션이 탑재됐다”며 “가정용 로봇청소기에도 적용 가능할 정도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지만 오는 6~7월 경에는 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인 신기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솔루션을 활용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군으로 솔루션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물류로봇시장은 2016년 19억 달러, 4만대 규모에서 2021년 224억 달러, 62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진로봇은 D-SLAM 솔루션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방침이다.

/대전=오세성 기자·나누리 인턴기자 sesung@

박정호 사장-마윈 회장 만났다... 뉴ICT 협력

SK텔레콤-알리바바 그룹 ‘회동’ 사업·미래 기술 협력 검토 예정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텔레콤은 8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박정호 사장과 마윈 회장이 만나 New ICT 산업의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사장과 마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5세대(5G)이동통신 등 차세대 ICT 산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차세대 미디어·콘텐츠 등의 미래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사업·미래 기술 협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사는 통신,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IC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과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T 분야에서 각국 대표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협력이 추진되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알리바바그룹

은 대표급 회의를 조만간 다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마윈 회장이 당사 그린 ICT 청사진을 전해 듣고 흔쾌히 초청에 응했다”며 “박정호 사장과 마윈 회장은 양사가 New ICT와 4차산업혁명 생태계 확장을 선도하고 양국 협력의 가교가 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겸 대표이사,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중국 기업가클럽 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전자상거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온라인결제 등을 사업 중이다. 2016회계연도 기준 그룹 매출은 약 230억 달러(약 25조원)이며, 현재 기업 가치는 약 4720억 달러(약 513조원)에 달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동아 본사에서 LG유플러스 김봉천 기업영업3그룹장(왼쪽 네 번째)과 동아 박춘영 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동아에 ESS 설비 구축

LG유플러스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볼트제조 전문 기업인 동아 본사에 전력 비용 절감이 가능한 5.3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오는 4월까지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ESS 설비는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에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 충전한 전기를 사용해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효율화 솔루션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ESS 설비는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의 상태를 감시하는 BMS, 배터리의 충전·방전을 위해 전기 특성을 변환하는 PCS, ESS 설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PMS 장비로 구성된다. LG계열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주요 장비들의 호환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것이 강점이다.

또 LG유플러스는 ESS 설비를 구축하기 전에 고객의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해 설비의 최적화된 충전·방전 시점과 전기 사용 계획을 컨설팅한다. 고객의 전력 소비 패턴은 ‘한전 i-Smart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15분 간격의 전기사용 내역 및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된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설비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5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과 공동 사업을 통해 각사가 보유한 핵심역량과 기술을 결합,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루마니아서 5G FWA 시범 서비스

삼성전자·시스코·오렌지

유럽서 첫 복수 벤더 장비 활용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루마니아에서 5G FWA(고정형 액세스)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및 프랑스 소재 유럽 다국적 통신사 오렌지와 함께 올 하반기 5G FWA 시범 서비스를 루마니아에서 약 한달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수 벤더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제품간 상호호환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기가비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FWA

A 시범 서비스를 위해 실내의 5G 가정용 단말과 소형화된 5G 기지국, 네트워크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코는 통신 제어부와 실제 사용자 데이터부를 분리해 대량의 5G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하는 ‘시스코 엔에프비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차세대 가상화 코어 제품인 ‘시스코 울트라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공급한다.

삼성전자와 시스코는 2017년부터 두 회사 5G 제품의 상호호환성 실증 시험을 진행해왔다.

오렌지 무선통신네트워크 부문 아르노 방파리스 전무는 “이번 시범 서비스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유연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FWA, NFV, 멀티 벤더 상호호환성 기술들이 창출하는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삼성, 시스코와 함께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icindun@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 팀 서기용 전무는 “미국에 이어 유럽 기반의 글로벌 통신사업자인 오렌지와 함께 5G를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발굴하게 됐다”며 “이번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유럽 시장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스코 통신사업자 사업부문 임트 카노프 전무는 “이종 산업간의 협력과 벤더간의 상호호환성 확보는 5G 성공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며 “오렌지,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5G 시범 서비스는 혁신적인 가상화 기술과 새로운 스케일의 모델을 발굴해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실현을 위한 5G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렌지는 프랑스 소재의 글로벌 통신사업자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전세계 29개국에서 약 2억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가입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T, 키즈 워치 고객도 ‘체인지업 점프’

KT는 모든 스마트폰 단말 교체 프로그램인 ‘KT 체인지업 점프’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KT 체인지업 점프(점프업)’는 고객이 2년 사용 후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하면 반납된 폰 출고가의 최대 40%까지 중고가 보상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키즈 워치폰 사용 고객도 18개월 뒤 사용 중인 키즈 워치폰을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 시 반납하는 폰 출고가의 최대 40%까지 보상 후 스마트폰으로 교체 할 수 있다.

‘KT 체인지업 점프’는 ▲점프업(스마트



모델들이 ‘KT 체인지업 점프’를 소개하고 있다. /KT

형) ▲점프업(아이폰형) ▲점프업(키즈형) 3가지로 구성됐다. 각각 월 이용료(부가세 포함)는 3000원·2000원·1000원이다. /김나인 기자

KB '3兆' 클럽 가입·'1위' 탈환... "역사를 다시 썼다"

윤종규 표 아닌 체질개선 결과
여신 성장·금리상승 발판 삼아
조용병과 리딩뱅크 경쟁 치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KB국민은행본점.

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이 순이익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신한금융주에 뺏겼던 리딩금융그룹 자리도 9년 만에 되찾았다. 윤 회장 스스로 '윤종규 표는 중요하지 않다. KB표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색을 조직에 입히기보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체질을 바꾸는데 공을 들인 결과다.

비은행부문으로 영토를 넓혀 온 윤종규 회장과 '원(One) 신한' 아래 M&A와 자산운용 강화를 내세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맞대결이 올해 최대 볼거리가 됐다.

8일 KB금융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4.5% 증가한 3조 31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7조 71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4% 증가했고, 순수수료이익도 전년보다 29.3% 늘어난 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수수료이익 증가는 통합 KB증권이 출범하면서 증권업 수입 수수료 증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18%, 총자산수익률(ROA)은 0.82%였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6조 8000억원이었다.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여신 성장과 시장금리 상승을 발판삼아 수익

성을 회복한 것이 KB금융 실적을 견인한 주요 동력이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175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25.6%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증가를 통해 전년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1.71%를 보였다. 비은행 계열사로 이익 기반을 확대한 것도 지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KB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17억원, KB손해보험은 3303억원, KB국민카드 2968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KB금융은 리딩금융그룹 지위를 9년 만에 다시 되찾게 됐다. 신한금융이 2011년 처음으로 3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금융사 중 순이익 3조원을 넘긴 곳은 지금껏 나오지 않았다.

추가에서는 이미 KB금융이 신한지주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말까지만 해도 신한금융이 KB금융 주가를 앞섰지만 지난해 1월 26일을 기점으로 판이 바뀌었다. 이후 주가 차이는 더 벌어져 이날 증가 기준으로 KB금융 주가는 6만 1400원을 기록, 신한금융(4만 9600원)에 앞서고 있다.

시가총액 면에서도 KB금융(25조 6720억원)이 근소한 차이로 신한금융(23조 5203억원)을 앞선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KB가 그간 과감한 M&A 전략으로 체질을 빠르게 바꾼 반면, 신한은 반 박자 뒤졌다는 평가다. KB는 2014년 KB캐피탈, 지난 2016년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반면 신한은 2013년 예한별저축은행(현 신한

저축은행) 인수를 마지막으로 지난해까지 활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각각 은행·카드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은 아직 같 길이 멀다.

하지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020년까지 아시아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해외 금융사 M&A·투자은행(IB) 역량 강화를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어 2018년 리딩뱅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실적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은 1조 7110억원이다. 전년 보다 11.8% 줄어 들었다. 영업을 못해서가 아니다. 4분기 희망퇴직

금 1800억원, 딜라이브 유가증권 손실 반영분 1500억원, 대우조선 및 금호타이어 등 대손충당금 적립 1200억원 등 일회성 비용 4500억원가량이 반영된 결과다. 비금융부문도 KB금융 못지 않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이익은 1조 3710억원으로 전년보다 31.1% 증가했다. 신한카드 순이익은 9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고, 신한금융투자 순이익은 2119억원으로 전년보다 83.6% 늘었다.

KB금융그룹의 수성이나, 신한금융그룹의 탈환이나. 윤 회장과 조 회장의 신년사가 대결 구도를 짐작하게 한다.

윤 회장은 "고객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바꾸겠다. 또 동남아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로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진국 시장을 향한 '볼드 무브(과감한 조치)' 전략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도 신년사에서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One) 신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 부문의 판교 알파돔시티 인수를 원 신한 전략의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지주·은행·금융·생명 겸직의 그룹 투자사업부(GID)도 만들어 그룹 차원의 고유자산운용 전략도 강화했다.

핵심 계열사인 두 지주의 은행장들은 신년사에서 2020년 전 사업부 1위(허인 국민은행장)와 조격차의 리딩뱅크로의 도약(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은행, 순이익 1.5兆 달성

전년비 19.9% ↑... 2012년 이후 최대
"글로벌영업 등 지속성장 기반 확보"

우리은행은 8일 지난해 순이익(연결 기준)이 전년(1조 2613억원) 대비 19.9% 늘어난 1조 51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1조 6333억원)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우리은행만 놓고 보면 순이익은 1조 3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우리은행 여신은 222조 1180억원으로

2016년보다는 2.5% 늘었다.

가계 신용대출이 21조 9940억원으로 17.9% 늘었고 개인사업자(SOHO) 대출이 37조 5140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이 덕분에 은행 이자이익은 4조 7231억원으로 3.5% 늘었다.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47%로 전년 말과 비교해 0.06%포인트 올랐다.

비이자이익은 1조 1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늘었다. 외환분야와 자산관리 상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조 6110억원으로 9.7% 줄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

도 지난해 말 기준 0.83%로 전년 말(0.98%) 대비 0.15%포인트 떨어졌다. 연체율은 0.34%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추진해 온 체질개선 노력으로 수익성이 한 단계 올라갔다"며 "올해는 안정적 수익창출과 글로벌 영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서민금융 증대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열사인 우리카드는 1012억원, 우리종합금융은 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올렸다.

/채신화기자 csh9101@



신한금융그룹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타워 신한퓨처스랩에서 지주,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데이터시스템 등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신한퓨처스랩 4기 웰컴파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 중 신한지주 우영웅 부사장과 신한퓨처스랩 4기 기업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알리버 2017 유나희 대표, 빅토리아프로덕션 한현정(Victoria Han) 대표, 신한금융지주 우영웅 부사장, 짐즈에이 이성용 대표, 비주얼캡트 박재승 대표.)

스타트업 양성 '신한퓨처스랩' 4기 스타트

신한금융그룹, 전 그룹사 참여

신한금융그룹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타워 신한퓨처스랩에서 지주,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데이터 시스템 등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신한퓨처스랩 4기 웰컴파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한퓨처스랩 4기 모집에는 디지털금융 신기술과 생활 영역의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21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 중 '짐즈에이'는 공항과 호텔 사이에서 여행객 캐리어를 운송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앞으로 신한금융과의 협업을 통해 물류 서비스를 넘어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 접점 데이터를 활용한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여행

서비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비주얼캡트'는 사용자의 콘텐츠 몰입도, 사용자환경(UX/UI) 개선사항, 마케팅, 결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용자 인증 및 결제 등에 신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4기에는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 3개사도 포함됐다.

이들 21개 기업은 향후 신한금융과의 기술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며 입주와 동시에 퓨처스랩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또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그룹사 뿐만 아니라 외부 제휴·파트너 기관과의 공동투자도 제공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생보사 부담 가중 '新보험제도' 연착륙 최우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8일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 여력제도 K-ICS 등 생보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의 연착륙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협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포화, 성장둔화, 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생보사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보험시장에는 오는 2021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원가 평가 대비 보험사 부채가 급증하여 생보사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각 사는 이에 후순위채 발행 등 정책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IFRS17 적용과 관련해 생보사들의 부담 완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 IFRS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 평가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계의 실

무적 어려움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 하겠다"며 "국제적 건전성 규제 적용 방법과 유예 시기 등을 파악해 국내에서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 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신 협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행돼 봐야 (실손보험료)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보험료)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선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35sea@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올 설 선물 트렌드는 ‘가심비’·‘간편식’

중저가 선물세트 가장 많이 팔려
소용량·간편식 제품 비중 증가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벌써 설맞이로 들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선물 마련을 위해 마음도 분주하다.

기업들은 설을 앞두고 다양한 설 선물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올해 설 선물을 내놓으면서 내세운 화두는 ‘가심비’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정성을 듬뿍 담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뜻이다. 또 폭 넓은 연령층을 포용하면서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 이후 설 선물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이 기간 농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35.2%, 수산은 31.7%, 축산은 37.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한 결과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산 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 가격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와 10.7% 늘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줄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설 선물 판매 매출이 전년 설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축산(31.3%), 수산(51.3%), 농산(51.7%), 주류(22.6%) 등 작년에 주춤했던 주요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 호조세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선물세트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

로 분석했다.

식품업계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비 양극화 심화로 올해도 중저가 카테고리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선물세트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구성으로 오랜기간 명절선물로 오랜기간 사랑받고 있다. 1~2인가구 트렌드에 발맞춰 소용량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가정간편식(HMR) 제품들도 비중이 늘었다. 또한 최근 소비자 트렌드로 급부상한 가격 대비 심적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심비’에 초점을 둔 선물세트로 등장했다. /박인웅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명절음식 조리 후 배송까지 ‘한상차림’

| 롯데백화점 |

간편 명절음식·프리미엄 상품도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 행사를 맞아 ‘한상차림’ 상품을 선보인다.

최근 직접 조리된 제품인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롯데백화점은 명절 맞이 ‘한상차림’ 상품을 기획했다.

‘한상차림’ 세트는 구성된 상품을 날개로 모아 사는 것보다 가격이 약 10% 저렴하다. 고객들이 상품을 수령하는 전날에 요리하고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한다.

롯데백화점은 총 15여가지의 한상차림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상품은 ‘라운드키친7상차림 세트’로 전 세트, 나물 5종, 소갈비찜, 나박김치, 잡채, 소고기뭇국으로 구성됐다.

완자, 꼬치산적 등 8가지 전으로 구성된 ‘전 세트 1호’와 ‘소갈비찜 1호’ 등도 마련했다.

‘한상차림’ 세트는 롯데백화점 식품매장과 온라인몰인 ‘엘롯데’에서 오는 13일까지 주문 가능하다. 상품 수령은 15일 전까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주문한 제품은 고객들의 집으로 직접 배송해준다.

진소현 롯데백화점 식품부문 바이어는 “설은 온 가족이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대명절이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식사도 간소화 되고 음식 또한 직접 요리보다는 완성된 요리를 주문하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에게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백화점 최초로 ‘한상차림’ 세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상품도 내놓았다. 프리미엄급 대표 상품으로는 ‘L-No.9’ 세트가 있다. 이 세트는 ‘1++ 등급(마블스코어9)’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No.9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다. 등심, 안심·채끝 등 6.5kg을 130만원에 100세트 한정으로 판다. 울릉쇠소 등심 등 총 4.2kg을 200세트 한정으로 95만원에 파는 ‘울릉쇠소 명품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명인명장이 만든 상품군도 있다.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는 참조기 10미를 250만원에 파는 ‘영광 범성포 굴비세트 황제’, 토판염 구별죽염간장 500ml와 토판염 구별죽염간장 자연송이 장아찌 등을 85만원에 구성한 ‘기순도 토판염 구별죽염 명품 특선1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라운드키친7 상차림세트 1호.

/롯데백화점

1·2인 가구 위한 ‘간편식 명절선물’ 선배

| 신세계백화점 |

곰탕·고기전 등 간편 조리식품

신세계백화점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인·2인가구와 명절 음식 초보 고객들을 위해 처음으로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신세계는 명절 음식 요리가 아직 낯선 주부와 1인가구 등 한우, 굴비, 갈치, 멸치 등 식재료 원물보다 간편 가정식 메뉴가 편한 고객들을 위해 전 점포에 설 특설매장을 열었다.

신세계는 올 설에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를 찾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곰탕, 육개장, 고기전 등 총 8개 품목, 1만세트를 준비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올반 브랜드의 간편식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진한 곰탕, 북어 해장국, 청국장, 맛김치 등 총 9가지 인기 국과 탕, 반찬을 구성해 1인가구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든 ‘올반키친 가족한상 세트’와 고기전, 육즙가득 왕교자, 떡국떡 등 명절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구성된 ‘올반키친 명절한상 세트’를 선보인다.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전통 죽과 스프로 구성된 설 선물도 나왔다.

전북 삼계죽부터 마스카포네 크림죽까지 업선한 재료로 만든 라쿠치나 프리미엄 죽 세트, 한우 영양죽, 단호박 수프, 토마토 수프 등 죽과 수프를 함께 구성한 라쿠치나 죽·수프 혼합세트가 대표 상품이다.

버터마요 간장, 카레간장, 계란에 뿌리는 간장 등 간편하게 조리해도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간장으로 구성된 ‘만능간장 선물세트’도 1인 가구를 위한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최근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개인 수요 증가로 전통적인 선물에서 벗어나 받는 사람을 고려한 선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처음으로 가정 간편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평창 특산물로 구성된 7개 품목 3400세트를 새롭게 구성해 선보였다. 평창 지역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사육해 육질이 고소한 평창한우 선물세트를 2가지로 구성, 30만원의 ‘강원 평창 한우 만복’을 150세트 한정으로 22만원으로 선보이는 ‘강원평창 한우 다복’은 200세트 한정으로 출시했다. /김유진 기자

선물 하나로 두가지 품목 '일석이조'

| 현대백화점 |

한우·전복, 연어·메로구이 혼합세트

현대백화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색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단일 품목의 대용량 선물세트 대신 용량이 작지만 여러 품목이 포함된 선물세트로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1++등급 한우(등심 스테이크 0.9kg·채끝 스테이크 0.9kg)와 전복 완도 등에서 채취한 최상급 전복 8마리를 함께 담은 '현대 명품 한우 전복 혼합세트(사진)'를 선보인다.

또 제주산 갈치와 옥돔, 고등어를 혼합한 '제주 어물전 세트'와 훈제 연어와 메로 구이를 섞은 '연어·메로구이 세트', 전복장과 영덕게살 등으로 만든 '어부의 밥상 명품어찬 세트' 등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또 사과·한라봉·페루 애플망고

고 등 6종의 과일을 고객의 취향대로 구성할 수 있는 '과일 초이스 기프트 세트'와 버터·치즈 등을 선택하는 '구르메 치즈 초이스 세트'도 올해 처음 판매한다.

윤상경 현대백화점 생식품팀장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프리미엄급 상품들을 함께 넣은 이색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향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조선 3대 명주 등 전통주 40종 출시

| AK플라자 |

무형문화재 제 6호 전주 이강주 등

AK플라자는 설 명절을 맞아 조선 3대 명주를 비롯한 한국 전통주 선물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전통주 선물세트는 한국 전통주의 맛과 멋,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취지로 기획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립한 '전통주 갤러리'와 협업으로 육당 최남선의 저서 조선상식문답에서 꼽은 조선 3대 명주부터 공식만찬주, 주요무형문화재 전통주까지 총 40종의 우리나라 전통주를 선보인다.

3대 명주 중 첫번째로 꼽히는 평양의 감홍로주(사진)와 녹두장군 전봉준을 치료할 때 사용했다는 일화를 가진 정읍의 죽령고향도 무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된 전주의 이강주 등을 내놓는다.

또 고려 황실에 진상되던 문배주 특1호

세트와 국내 전통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소곡주 명화1호 세트, 함양지방에서부터 500년 전부터 이어져온 솔송주 프리미엄 세트, 안동소주 특1호 세트 등을 선보인다.

한국 전통주 선물세트는 AK플라자 설 선물 본판매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구로본점, 수원AK타운점, 분당점, 평택점 등 4개 점포 식품관에서 5만원~1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K플라자는 설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동안 농축수산물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DIY(Do It Yourself) 세트, 고가 프리미엄 세트 등 사회적 분위기에 맞춘 특색 있는 품목을 강화했다.

/김유진 기자



5만원 이하 포장 경량화로 실속 챙겨

| 롯데마트 |

과일 선물세트 3종 자사 브랜드 구성

롯데마트는 5만원 이하의 포장 경량화 실속형 선물세트를 앞세웠다.

일반적인 선물세트가 포장박스와 랩, 보자기 혹은 소포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롯데마트가 준비한 실속형 선물세트는 포장 용기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비용을 줄였다.

실속 선물세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일 선물세트 3종은 자사 유기농 PB브랜드인 '해빗(Hav'eat)' 상품으로 구성했다.

우수관리농산물제도(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담은 해빗 사과와 배를 세트로 구성해 선보인다. 또 호두, 구운 아몬드, 코코넛 피너츠 등 견과류가 담긴 '너츠박스 실속형 선물세트'도 판매한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1등급 한우 등심과 안



롯데마트 실속형 설 선물세트 모습. /롯데마트

심, 채끝 등을 먹기 좋게 한 팩씩 소포장한 '한우 냉장 간편포장 한마리 세트', 자연에서 방목해 섬세한 마블링과 풍미를 자랑하는 이베리코 돼지의 다양한 부위를 담은 '이베리코 혼합세트' 등이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 10대 행사카드(롯데·비씨·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NH농협·전북은행·광주은행 카드) 결제 시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롯데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할인을 해주고 행사상품에 한해 10대 카드로 결제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유진 기자

'효도선물' 건강기능식품 집중 편성

| 롯데홈쇼핑 |

이경제 더힘찬 녹용 등 방송

롯데홈쇼핑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인기상품들을 집중 편성해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인다.

우선 매년 명절시즌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선물로 각광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집중 편성한다. 롯데홈쇼핑 단독 상품이 자 대한민국 대표 한의사 이경제 원장의 20년 노하우를 담은 '이경제 더힘찬 녹용'은 11

일 오전 7시 35분에 선보인다. 매년 명절시즌마다 완판을 기록하는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를 비롯해 '트루바이타민 비타민', '바실리사 유기농 그릭히니(사진)' 등 건강식품들도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치솟는 차례상 물가에 고객들을 위해 신선식품들을 합리적인 구성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하이랜드 LA갈비'는 천연 목초방목 뉴질랜드에서 자란 품질 좋은 소고기다. 원육갈비 4kg구성과 조리양념을 한 세트 구성했다.

혼합 과일세트도 판매한다.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내추럴팜21 명절과일세트'를 선보인다. 주부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프리미엄 가진 브랜드 '다이스' 특집방송도 진행된다. 다이스 무선 청소기 인기모델 'V8 카본파이버(8~90만원 대)'를 선보인다.

지난해 4월에 업계 최초로 론칭한 '다이스 슈퍼소닉 드라이어(4~50만원 대)'도 제품본체, 스무딩노즐, 디퓨저, 스토리지 행거 등 한정 패키지 구성으로 방송한다.

/김유진 기자



올반 소불고기 등 간편식품 방송 확대

| GS샵 |

위대한 설 특집서 센스만점 구성

GS샵은 명절 선물과 차례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대한 설' 특집을 실시하고 관련 상품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TV홈쇼핑 채널은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간편식품 방송을 확대한다. '올반 소불고기'는 바삭 볶아 먹는 연양식 불고기와 육수를 부어 먹는 서늘식 불고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센스만점 구성으로 마련, 실수요뿐 아니라 선물용으로도 좋다.

'강강술래 본식 LA갈비 세트'는 초이스 등급의 LA갈비를 엄선해 배, 파인애플, 레몬, 표고버섯, 마늘 등으로 맛을 내는 비법 양념장에 재운 제품을 한 데 모은 상품이다.

모든 밥상에 빠져서는 안될 김치는 국내산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종가집만의 신선 발효비법이 살아있는 '종가집 포기김치+총각김치'와 감순의 김치명인의 200년 내림



산지에 세척사과, 배 방송장면. /GS샵

순맛이 담긴 '감순의 고추씨 백김치 세트'를 준비했다.

이 외에도 ▲산지에 씻어나온 특대사과 ▲동원수산 프리미엄 킹크랩 ▲감순의 나주곰탕 세트 ▲이우철 왕갈비탕 ▲이현우 일품 떡갈비 등 식품 명장과 전국 맛집 대표 식품들이 소개된다.

주부들의 명절 음식 장만 일손을 덜어줄 주방용품들도 방송한다. 프라이팬, 인덕션 등 명절 음식 장만에 꼭 필요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김유진 기자

아티스트와 상생 '착한 선물세트'

| 애경 |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 출시

애경은 올 설에 신진 일러스트 작가 '에아Ag(YeahAg-에아에이지)'와 디자인 컬래버레이션을 기획,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를 출시한다.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는 신진 아티스트와 상생한 착한 생활용품 선물세트로 신선한 디자인과 착한 소비를 통해 2018년 소비 트렌드인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과 가치를 추구하는 이른바 '가심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신진 아티스트 에아Ag는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미술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와 동물 그림이 만나 탄생한 그녀만의 '아니누보(Ani-Nouveau)' 일러스트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 작가이다.

올해 새롭게 출시한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는 케라시스 샴푸만의 고유한 향

과 기능을 느낄 수 있는 선물세트 구성품이 에아Ag만의 독특한 색채와 한데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는 샴푸, 린스, 치약 등의 생활품을 8000원 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 I-1호(사진)와, 샴푸, 린스의 본품 구성으로 실용성을 높인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 I-3호 등 총 2종으로 구성됐다.

케라시스 아르누보 선물세트는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중저가·복합형 선물세트로 시장 공략

| CJ제일제당 |

소비 양극화 심화... 다양한 가격대 준비

CJ제일제당은 설 명절을 맞아 실용적인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2~4만원대 중저가'와 '복합형' 선물세트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설에도 소비 양극화 심화로 인해 2~4만원대 중저가 카테고리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용성이 특징인 스팸 세트(사진)와 복합세트 판매 극대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스팸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선호 제품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복합세트를 강화했다.

14년 연속 선물세트 판매 1위 제품인 스팸 세트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만원대 중가 세트를 주력으로, 2만원대에서 최대 7만원대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스팸만으로 구



성된 단독 선물세트와 '백설 고급유', '계절 어보' 등과 복합 구성한 선물세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유 세트'는 카놀라유와 포도씨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등 고급유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유럽 현지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된 병 타입의 수입 고급유 '유리 피안 세트'와 안달루시아산 퓨어 올리브유를 앞세워 건강을 추구하는 실속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했다. 건강 선물의 대표 제품인 '한뿌리 세트'는 기존 인삼과 홍삼 외에도 프리미엄급 홍삼인 흑삼 등을 복합으로 구성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가족의 건강 '홍삼톤골드'로 지키자

| 정관장 |

6년근 홍삼농축액... 피로개선 등 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설 선물 시장에도 정관장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삼은 6년근 인삼을 수증기로 찌서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포닌, 홍삼다당체, 아미노당, 미네랄 등이 조화를 이뤄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기억력과 혈행개선, 항산화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며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관장 홍삼은 최고 품질의 홍삼을 생산하기 위해 인삼을 심을 흙부터 검사하며 100% 계약경작을 통해 6년근 국내산 홍삼의 순수성을 보장한다.

원료관리 단계부터 홍삼 제조 단계까지 총 7번의 검사, 290여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박인용 기자



정관장의 대표적 액상 파우치 제품군에 속하는 '홍삼톤골드' (사진)는 2005년 2월 출시된 이래 10년이 넘도록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선물용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6년근 홍삼농축액을 주원료로 작약, 당귀, 황기, 천궁 등의 부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했으며 맛이 진하고 섭취가 간편하다.

홍삼농축액의 함량이 같은 톤류 제품 중 가장 높고 홍삼의 5대 기능성을 충족하여 근본적인 피로개선 및 면역력 관리를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나이대와 성별에 상관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 /박인용 기자

건강·품격 담은 선물세트 200여 종 풍성

| 동원F&B |

동원참치·리챔 등 스테디셀러 주력

동원F&B가 '동원참치'와 '리챔'을 중심으로 건강과 품격을 담은 '동원 설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동원F&B는 '더욱 건강한 설 선물세트'를 컨셉으로 스테디셀러인 '동원참치 선물세트'와 '리챔 선물세트' (사진)에 주력한다. '동원참치'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과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리챔' 국내 최초로 저나트륨 콘셉트로 출시된 캔햄 브랜드다.

전통적인 인기상품인 '양반김선물세트'와 함께 1인 가구와 HMR시장 성장 등 최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더참치세트'도 선보인다. '더참치'는 기존 요리에 주로 활용되던 살코기 참치와는 달리, 밥에 바로 먹는 살코기 참치캔으로 참치의 영양에 맞을 더한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동원F&B는 이번 설에 올리고당을 담은 선물세트를 최초로 선보인다. 이번에 포함되는 '동원 프라도 올리고당'은 일반적인 올리고당보다 식이섬유 함량을 높이고 칼로리를 낮춰 더욱 건강한 제품이다. 동원F&B는 향후 다양한 조미료 구성품을 활용한 선물세트를 통해 소비자로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동원F&B는 홍삼전문브랜드 '천지인'과 80년 역사의 건강식품 브랜드 'GNC', 프리미엄 자연건강식품 브랜드 '하루기초'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세트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박인용 기자

부모님 위한 '황작'·'나토키나제' 인기

| 롯데제과 |

황작, 특허 공법으로 효능성 신뢰감

롯데제과 웰스원의 프리미엄 홍삼브랜드 '황작'이 설을 앞두고 인기를 얻고 있다. 황작은 '황작홍삼농축액', '황작활용후애', '황작홍삼젤리', '황작수-한세트'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또 혈관 건강을 위한 '혈압컨트롤엔나토키나제'도 설 선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웰스원 황작은 품질 좋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프리미엄 홍삼브랜드다. 황작농축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롯데의 특허받은 공법으로 Rg3 함량을 자사 홍삼 농축액과 비교해 약 5배 높이고, 사포닌 함량도 1.7배 높여 효능에 있어 큰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보인 '황작 활용후애'는 갱년기 고객층을 위한 건강식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남성을 위한 '활용'과 여성을 위한 '후애'가 한 세트 안에 들어 있어 부모님들의 선물로 좋은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좋은 제품이다. 황작 활용은 민들레복합추출물이 함유되었고, 황작 후애는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 겉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한편 '혈압컨트롤엔나토키나제'도 명절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나토키나제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되며, 자연발효 식품인 '나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건강식품이다. '혈압컨트롤엔나토키나제'는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품은 대두 발효과정 중에 발생하는 나토의 핵심 성분인 나토키나제를 주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제례용·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

| 롯데주류 |

'백화수복' 편의성 맞춰 3가지 용량 구성

롯데주류는 올해 설 선물용으로 74년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청주 '백화수복' (사진)을 선보인다. 백화수복은 국내 차례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제품이다.

100% 국산 쌀로 만들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롯데가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마친 효모를 이용해 특유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병목 캡셀(병뚜껑을 감싸고 있는 비닐 포장재)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유의 깊은 향과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



성맞춤이다.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이 700ml, 1L, 1.8L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 편의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고급 수제 청주인 '설화'는 최고 품질의 쌀을 52%나 깎아내고 특수효모로 장기간 저온 발효하여 청주 특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술이다.

'국향'은 엄선된 쌀을 100% 원료로 하여 저온에서 3차례 발효시켜 깊고 그윽한 맛이 일품인 순미주(純米酒)다.

'대장부'는 100% 우리쌀의 외피를 15도 이하의 저온에서 발효와 숙성을 거쳐 깊은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한 증류식 소주다. /박인용 기자

유당불내증엔 '소화가 잘되는 우유'로

| 매일유업 |

락토프리 우유로 모두가 편안하게

매일유업이 설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설 선물로 누구나 배 아픔 없이 마실 수 있는 락토프리 우유 '소화가 잘되는 우유' (사진)를 추천한다.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이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제품 부문 공식 서포터인 매일유업이 출시한 백색우유 중 락토프리 우유 브랜드로, 평소 유당불내증과 더불어 소화능력 저하로 유제품을 통한 영양섭취가 불편한 고령층 소비자들을 포함해 누구나 건강하게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선보이고 있다.

차별화된 공법으로 우유 성분 중 분자 크기가 작은 유당만을 분리, 제거해 달지 않고 우유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렸다. 또한 매일유업은 지난 2015년에 소화기 내과 전문의 및 의학 연구팀과 함께 유당을 제거한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이용해 유당불내증 완화에 락토프리 우유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유당불내증'은 몸 속 유당분해효소 감소로 유제품 섭취 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 설사와 복통, 방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유당불내증을 겪는 사람들과 고령으로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평소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경우가 많으나 배 아픔을 유발할 수 있는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가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품 종류로는 오리지널과 일반우유 대비 지방을 1/2로 줄인 저지방,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멸균 제품도 선보이며 편의성을 더욱 높여 국내 락토프리 우유 시장을 이끌고 있다. 매일유업의 가정 배달 서비스인 '매일다이렉트'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제주 녹차의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 아모레퍼시픽 | 오설록

허브차 등 ‘리프레쉬 티 컬렉션’ 선배

아모레퍼시픽이 전개하는 프리미엄 티(Tea) 브랜드 ‘오설록’은 설 연휴를 맞아 건강을 고려한 허브차를 중심으로 ‘리프레쉬 티 컬렉션’ (사진)을 선보였다.

소중한 이에게 제주도의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오설록의 대표 상품 ‘메모리 인 제주’, 음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내 마음대로

만드는 선물세트’, 녹차를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스페셜 기프트’까지 다양한 구성들로 차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제주 녹차의 진한 향을 전파할 예정이다.

원하는 가격대와 상품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선물세트’는 차(茶)의 진정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클래식 티부터 매력적인 향이 돋보이는 블렌딩 티, 허브티까지 피라미드 티백 제품을 마음대로 선택, 받는 사람의 취향까지 배려했다.

또 오설록 티하우스와 백화점, 오설록 물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시 오설록의 베스트 티 키트(삼다연 제주·영굴제작·웨딩그린 티)를 제공한다.

서혜제 오설록 BM팀의 팀장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연령,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설날 선물 세트를 기획했다”며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마니아의 취향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차’ 선물을 고객들의 큰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oul.co.kr



품격 있는 액세서리로 고급스러운 ‘멋’을

| LF |

스카프·장지갑·숄더백·벨트 등 출시

LF가 소중한 이들에게 뜻 깊고 특별한 선물이 될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다크액세서리가 올 봄 출시한 ‘더어레이디’백은 품격 있는 설 선물로 제격이다. 엠보 소가죽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멋을 드러냈으며 톤 다운된 색감과 골드빛 로고 포인트를 통해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담았다. 또 스카프로 연출하기 가장 좋은 굵기와 길이의 핸드백 손잡이를 적용해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더했다.

또 다크액세서리의 루이스 장지갑은 스크래치에 강한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해 실용적이며, 3단 형태의 디자인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한다. 탈착가능한 카드 홀더 세트를 구성해 활용도가 높다.

다크액세서리에서 이번 봄 새롭게 출시한 시그니처 벨트는 블랙 색상의 소가죽 소



헤지스액세서리의 ‘걸스 피케’라인 숄더백. /LF

재와 톤온톤 색상의 금속 버클로 고급스러움을 드러낸다. 남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설 선물로 추천한다.

헤지스액세서리의 ‘걸스 피케’라인 숄더백은 반달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과 금장 로고로 차별화된 매력을 드러냈다.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해 활용도가 높은 스타일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화사한 컬러가 돋보인다. /김유진 기자

보습·탄력 지키기... 천삼·송이 ‘추천’

| 더페이스샵 |

‘예화담·더테라피’ 선물세트 추천

LG생활건강이 전개하는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예화담, 더테라피에서 출시한 선물세트를 추천한다.

더페이스샵의 ‘예화담 천삼송이 2종 스페셜 세트’ (사진)는 엄선한 6년근 금산 천삼과 자연산 강원 송이를 담아 깊은 보습감과 함께 탄력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예화담 천삼송이 라인인 남도 약초의 섬약산도에서 얻은 자생원료를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 포제법’으로 완성됐다. 자생비방이 더욱 깊은 자생력으로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길러준다.

‘예화담 생기 순환 에센스 기프트 세트’는 씨앗에서 뿌리,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자연 원료의 에너지를 오롯이 담아 피부 본연의 빛을 깨워 생기로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완성시켜 준다.



예화담 베스트셀러 생기 순환 에센스와 수액, 유액, 크림까지 생기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구성으로 생기 있는 피부로 관리하고자 하는 20~30대 여성에게 선물하기 좋다.

더페이스샵 ‘더테라피 2종 스페셜 기획 세트’는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에서 생산한 200년 전통의 블렌딩 포뮬러를 함유한 라인이다. 풍부한 영양의 귀리씨드 성분과 마리골드 꽃, 월계수잎, 올리브 열매를 약 6주간에 걸친 정성스런 핸드메이드 공법으로 완성했다. /김유진 기자

가성비 甲... 실속형 ‘김·기름·나또’ 세트

| 풀무원 |

1만6000원대부터 다양한 구성

풀무원식품이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조미김 설날선물’은 갓 구운 듯 바삭바삭하고 들기름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어 옛 맛을 그대로 즐기기 좋다. 또 현미유로 짜지 않게 구워 내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을 즐기기 좋다.

이번 설날 선물세트는 들기름 돌김, 들기름 재래김, 재래김 도시락 김 등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실속 있는 구성의 1만6000원대부터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분량의 6만원 대 제품까지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한전통(유지) 설날선물’은 전통 압착방식으로 제조한 국산 들기름, 참기름을 담은 선물세트다. ‘전통 압착 방식

으로 짠 국산 참기름’은 국산 참깨를 깨끗하게 씻어 적당한 온도에서 살짝 볶아 딱 한 번만 짜낸 참기름이다.

기름의 색은 투명하게 맑은 황금 빛깔이며 은은하고 고소한 향이 특징이다. ‘전통 압착 방식’으로 짠 국산 들기름’은 투명하게 맑은 황금 빛깔과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긋한 향이 특징이다.

‘국산콩 생나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100% 국산 콩으로 만든다.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빙온숙성’ 기술을 적용하여 나또 특유의 강한 냄새가 없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설 명절, 고생하는 여성만을 위한 선물

| 유한양행 |

질 환경 개선·질염 재발률 감소 효과

유한양행 ‘엘레나’ (사진)는 설 명절에 고생이 많은 여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유한양행 엘레나는 여성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생리활성 등급 2등급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덴마크 크리스찬한센의 특허받은 유산균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제조한 제품이다.

엘레나는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질 건강 도움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실제 여성으로 대상으

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질 내 환경을 개선하고 질염 현상 개선 및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엘레나에 함유된 UREX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취 시 소화기관을 통과한 후 항문에서 회음부를 거쳐 질 내부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기능한다. 인체에서 분리된 상화보완적인 두 종류의 특허균주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만들어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존 및 흡수 방식을 위해 특허용기를 이용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하루에 한 번, 한 캡슐만 섭취하는 간편한 용법으로 사용 편의를 더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질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할 만큼 여성의 75%가 한번씩은 겪게 되는 불편한 질환이며, 재발률 역시 기본 50% 이상이므로 일시적인 방법(청결제, 질정제)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질 건강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특허균주를 섭취함으로써 질건강과 장건강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부모님의 ‘잇몸 건강’을 챙겨보세요”

| 동국제약 |

후박나무 추출물 추가... 항염효과 강화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잇몸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통한 영양섭취가 중요하며, 음식을 잘 씹기 위해서는 치아를 온전히 보존하고 잇몸이 건강해야 한다.

치아는 잇몸과 치주인데, 치조골(잇몸뼈)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건강의 핵심은 ‘잇몸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붓고, 피나고, 시리고, 들뜨고, 흔들리는 등의 잇몸병 증상이 시작되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러한 잇몸병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잇몸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관리의 기본이

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욱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인사돌플러스’ (사진)와 같은 생약복합성분의 일반의약품도 도움이 된다.

‘인사돌 플러스’는 동국제약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10여년 간에 걸쳐 개발한,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잇몸약 복합제이다. 특히, 생약성분인 ‘후박나무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해 항염·항균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인사돌 플러스’를 복용하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 전·후 잇몸건강에 도움이 된다. /박인용 기자



| 유통 단신 |



한우자조금 '한우직거래 장터' 홍보행사

한우자조금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 설맞이 한우직거래장터 사전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우 등심, 안심,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한우 부위를 시중가보다 30~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손진영 기자 son@



KGC인삼공사가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및 기념 현판식을 진행했다.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KGC인삼공사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7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백인용 기자



지난 7일 몽골 에르덴숨에서 푸른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사막화로 생활터전을 잃은 현지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오비맥주

오비맥주

'카스 희망의 숲' 자선행사

오비맥주는 '카스 희망의 숲' 자선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몽골 환경난민들에게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신촌에서 몽골 환경난민을 돕기 위한 '카스 희망의 숲' 자선행사를 열고 몽골 수공예품, 차차르간(비타민 열매), 몽골 대자연 전경을 담은 엽서·액자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했다. /백인용 기자

이마트

안마의자·안마기 등 할인

이마트는 설을 맞이해 오는 21일까지 안마의자, 안마기 13종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코지마 안마의자네스트(CMC-A90)'를 348만원에, '코지마 안마의자 홀릭(CMC-L100)'을 168만원에 각각 준비했다. 또 '브라스 안마의자 드림(198만원)'을 구매하면 3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온열패드를 추가로 증정한다. /김유진 기자



모바일·T커머스 호황에 홈쇼핑업계 '호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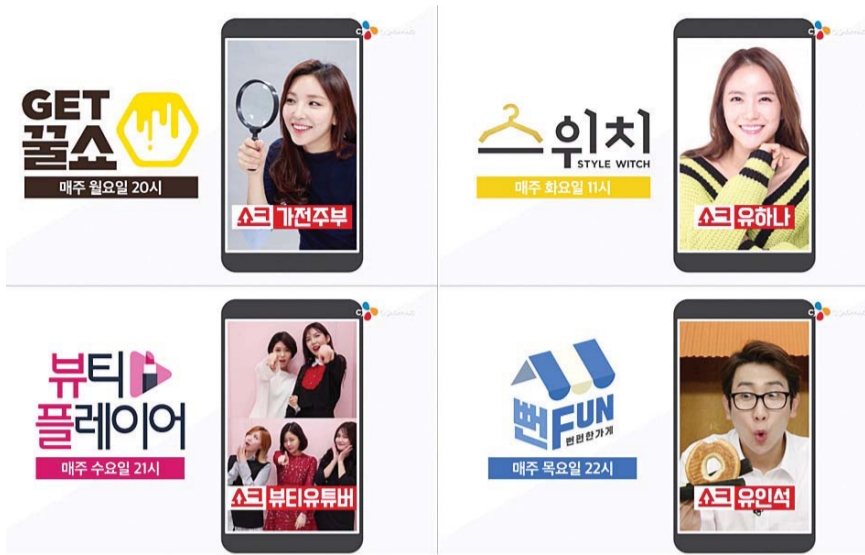
지난해 모바일 매출 무서운 성장 비중 커져 사업개편 등 환경 구축

홈쇼핑업계가 지난해 온라인쇼핑(모바일+PC), T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내었다. 모바일 쇼핑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면서 TV홈쇼핑의 한계를 극복했다. T커머스 시장 전망도 밝다.

8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이 지난해 자사 모바일 쇼핑 매출에 힘입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업계 1위 GS홈쇼핑은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조9220억원의 취급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517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445억원으로 12.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970억원으로 6.3% 줄었다.

모바일 쇼핑 매출 성장이 단연 눈에 띈다. 지난해 GS홈쇼핑은 모바일 쇼핑이 1조5562억원으로 18.3% 신장하며 전체 취급액 성장을 이끌었다. 모바일 쇼핑의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취급액이 1



CJ오쇼핑 모바일 전용 채널 '쇼크라이브' 프로그램들.

/CJ오쇼핑

조9159억원으로 48.9%로 비중을 확대하며 TV쇼핑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같은 기간 TV쇼핑 취급액이 0.6% 성장(총 취급액 1조8394억원)한 것과 비교된다.

GS홈쇼핑측은 "사업 역량을 모바일 시장으로 재빠르게 옮겨 TV상품과 연계한 모바일 쇼핑을 강화하는 등 채널

간 시너지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TV홈쇼핑에 집중돼 있던 사업 역량을 데이터 중심의 모바일 커머스로 전환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CJ오쇼핑은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취급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CJ오쇼핑

은 지난해 취급고 3조 7438억원, 영업이익 157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CJ오쇼핑 또한 모바일 주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을 대거 개편했다. 대표적으로 CJ몰의 화면을 모바일 쇼핑고객에게 편리하게 리뉴얼하고 모바일 전용 채널인 '쇼크라이브'를 론칭하는 등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T커머스는도 매출 성장에 견인했다. 인테리어와 식품, 의류 등 T커머스에 최적화된 상품을 기획을 바탕으로 T커머스 채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현대홈쇼핑도 지난해부터 현대H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익을 개선했다. 지난해 현대홈쇼핑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1조218억원,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1499억4400만원이다.

최근 현대홈쇼핑은 2014년에 운영했던 '와칭(Watching) ARS'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모바일 사업 개선에 나섰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올리브영 '직구' 아닌 '즉구'족 잡았다

(즉시구매)

해외 직구 상품 매출 71% 증가 패턴 분석해 키워드 'NEW' 선정

국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즉구(즉시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해외 직구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즉구 아이템 매출이 71%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허니체', '네즈', '쿤달', '내추레인', '아쿠아퍼', '글램글로우'를 비롯해 해외 직구족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대거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자연유래 성분을 내세운 '이브로체 라즈베리 헤어식초 대응



올리브영 해외직구 대표상품. /CJ올리브네트웍스

량' 제품과 '버즈비 립밤', '라우쉬 샴푸' 등이 매출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 미세먼지, 화학성분 등 외부환경에 대한 이슈(Natural)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피부관리를 쉽고 빠르게(Easy-quick) 할 수 있는 '스트라이텍 센시티브 패드'는 지난해 해외 직

구 상품 중 가장 매출이 높았던 상품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직구 상품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N.E.W'를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했다.

'뉴(N.E.W)'는 ▲유해성분을 배제한 안전한 성분을 찾는 소비 경향(Natural) ▲쉽고 빠르게 사용가능한 아이디어 상품(Easy-quick) ▲하나의 제품으로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약진(Wide-use)을 각각 의미한다.

올리브영은 올해도 'N.E.W' 키워드에 맞춰 직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올리브영은 물

만 묻혀 화장을 지우는 신개념 클렌징 퍼프 '페이스 헤일로(Face Halo)'를 국내 처음 선보였다. 페이스 헤일로는 국내 정식 판매를 기념해 진행한 사전 예약 행사에서 준비된 수량이 이를 만에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리브영은 'N.E.W' 키워드에 맞춘 직구 상품으로 액상형 철분제 '플로라딕스', 치약 없이 물로만 양치질 할 수 있는 음이온 칫솔 '키스유' 등을 순차적으로 입점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뷰티 얼리어답터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입소문이 난 제품을 한 발 먼저 구매하려는 직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올리브영은 트렌드와 가성비, 제품력을 모두 갖춘 상품들을 발빠르게 선보이며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롯데슈퍼, 프리미엄·가심비 갖춘 '맞춤형' 탈바꿈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오픈 지역상권 분석해 '뉴컨셉' 선택

롯데슈퍼가 '프리미엄'과 '가심비'를 중심으로 변화한다.

롯데슈퍼는 소득 상위 30%를 위한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을 오픈하고 기존점의 리뉴얼을 통해 상권 맞춤형 '뉴컨셉' 점포로 전환하는 두 축을 기반으로 천편일률적인 매장에서 탈피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강남구 도곡동에 1호점을 오픈한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은 이후 송파구 문정동과 마포구 공덕동에 이어 2호점과 3호점을 선보였다. 오는 9일에는 4호점인 서초점을 오픈한다.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은 소득 상위 30%를 위한 '프리미엄'과 함께 '대중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프리미엄 상품의 대중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8000여개 종류의 취급상품 중 5% 가량은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최상위 프리미엄 상



고객들이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롯데슈퍼

품이다. 40% 가량은 고급 식품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 나머지(55%)는 대중적인 상품으로 각각 구성했다.

이같은 프리미엄 전략은 체첸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실제 기존 롯데슈퍼를 리뉴얼한 도곡점(1호점)과 공덕점(3호점)은 전환전 대비 각각 21.7%, 43.1%의 높은 매출 개선을 보였다. 신규 개발 점포인 '문정점(2호점)' 역시 일반 슈퍼마켓 신규점 대비 20.2% 이상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프리미엄 푸드마켓의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 카테고리리는 단연 신선식품이다. 타

프리미엄급 식품관이나 슈퍼마켓과는 차별화된 상품과 매장구성에서 기인한다.

한편 롯데슈퍼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뉴컨셉' 매장은 전국 460여 개의 통일된 구성의 롯데슈퍼가 아닌, 지역 상권의 연령대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상품과 매장을 새롭게 탈바꿈 시킨 매장이다.

과일과 채소의 경우 기존점 대비 프리미엄 품종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과일 존'을 별도로 구성해 질 좋은 상품을 늘렸다. 또 친환경 상품과 특수채소, 간편 셀러드 등 상권별 수요에 따른 '특화 카테고리' 상품을 선별적으로 도입한다. /김유진 기자

설 명절 부모님 선물 예산 2명 중 1명 '10만원 이상'

2명중 1명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부모님께 약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마켓은 설 명절을 앞두고(1월25일부터 2월4일까지) 고객 총 94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드릴 '설 선물 예산'에 대한 고객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제시 금액 중 가장 높은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50%)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5~10만원 미만(34%) ▲3~5만원 미만(7%) ▲1~3만원 미만(6%) ▲1만원 미만(3%)이 순을 이었다.

응답자 60%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25%가 '지난해보다 더 쓸 예정'을 선택했고 14%는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품목으로는 '한우, 전복 등 고급 신선식품'을 선택한 응답이 30%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건강기능식품'(25%), 3위는 '안마의자 등 건강·의료용품'(12%)이 각각 뒤를 이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희망 선물'을 묻는 질문에는 '여행 상품'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김유진 기자

롯데지알에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

샤롯데봉사단, 홀트일산복지타운 방문

롯데지알에스는 자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이 지난 7일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

이날 롯데지알에스 샤롯데봉사단은 사내 행사를 통해 조성된 모금액으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전달했으며, 장애인 생활관 청소와 목욕, 산책, 세탁보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지알에스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지난 7일 롯데지알에스 샤롯데봉사단이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지알에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지알에스 샤롯데봉사단은 2016년부터 'Mom 행복한 프로젝트'를 주제로 하는 미혼 한 부모를 위한 돌잔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취학 아동 자녀를 둔 미혼 한 부모 집을 방문해 공부방 홈 스타일링을 통해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어르신을 모시고 새해 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소외 이웃에 명절음식 전달

하이트진로가 설을 맞아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이웃들에게 명절 음식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18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윗놀이,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며, 새해 복을 기원했다. 또한 떡국,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나누고 어르신 식사 봉사와 함께 갖가지 먹거리가 담긴 복주머니를 선물했다.

이 행사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하이트진로는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이외에도 서울시내 27개 기관의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5천인분의 떡국용 떡과 만두를 후원했다.

/박인용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 물품대금 850억 조기 현금지급



한화그룹 주요 제조 계열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총 규모는 850억원 수준이다.

☞한화는 9일까지 830여개 협력업체에 약 460억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화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9년째 명절을 앞

두고 대금 조기 지급을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9일 330개 협력사에 대금 200억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384개 업체에 106억원, 한화첨단소재는 32개 협력업체에 85억원을 평소보다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설맞이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5개 계열사 24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참여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명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음식을 만들어 전달한다.

한화첨단소재는 지난 6일 이선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설맞이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떡국용 가래떡 100kg을 직접 썰고, 만두 3000여개를 빚어 함께 포장한 후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15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주금공, 설맞이 '떡국 떡' 나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7일 부산시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

해 설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하고 노사공동으로 지역 장애인 400여 명에게 떡국을 배식봉사하고 떡국 떡도 선물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왼쪽 네 번째)이 이날 부산시 남구 조각공원로에 위치한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조성혜 복지관장(왼쪽 두 번째), 신중용 장애인협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장애인대표자에게 기부금과 떡국 떡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금공

신점 [神占] 운세 2월 9일 (음 12월 24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60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72년생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84년생 재수가 좋은 하루입니다. 96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1년생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73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85년생 개업 전업 모두 때가 좋으니 시작해도 좋습니다. 97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50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이 불안한 하루다. 62년생 불투명한 행동은 부와 명예의 길을 막습니다. 74년생 소원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6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51년생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더욱 복됩니다. 63년생 가문이 빛이 나고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75년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8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52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64년생 몸의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76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88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53년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65년생 중독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년생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66년생 좀 더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8년생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5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67년생 주변인들과 의견이 상반되어 위기가 옵니다. 79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91년생 남과의 사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56년생 때가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68년생 주위 사람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80년생 아랫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92년생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57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셔야 합니다. 69년생 소원은 늦게 성취될 것입니다. 81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93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습니다.



58년생 편안한 휴식은 약이 됩니다. 70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2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94년생 바른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59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7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입니다. 95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2				9			
		1	6	5	3	2		
8	3						5	1
	4			6			1	
	6		4	3	5		9	
	9			2			4	
3	2						6	8
		6	2	9	8	4		
		5					7	

		6	3	9	2	5		
			2	5		1	3	
	1							2
5			1		6			7
			1				2	
4				8		3		6
	3							1
			4	2		7	8	
		8	6	3	5	4		

스도쿠 정답

6	7	9	1	5	8	4		
5	4	8	6	2	9	1	3	
8	9	1	7	5	6	2		
9	4	5	2	8	6	5		
2	6	8	5	4	7	9	1	
1	5	6	9	8	4	7	2	
1	9	2	7	6	4	8		
4	8	2	5	9	1	7	6	
4	6	7	8	1	2	5		
2	7	5	8	9	6	1		
5	6	8	1	7	5	9		
5	1	9	8	6	2	4		
9	5	1	2	8	6	4		
4	8	6	9	7	1	5		
6	2	8	9	4	5	1		
8	9	5	1	2	7	6		
1	4	5	2	6	9	8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성도재일에 해보는 心出家

부처님 오신 날 못지않게 소중한 불가의 날이 있다. 그 중의 으뜸이 바로 성도재일(成道齋日)이다. 대부분의 큰 사찰에서는 성도재일 전날 밤부터 해서 새벽 예불까지 철야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사찰인 월광사는 법회에 정형적인 형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기도회 철야기도라 불리는 것이다.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암자에 가깝고 따라서 규모도 작기에 최소한 귀가가 가능한 시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혹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신도분들의 경우엔 새벽 4시 반에 새벽예불에 참석할 수 있으니 월광사처럼 작은 암자에서는 철야기도라 할 수 있다.

성도재일뿐 아니라 사부대중이 여법하게 갖추어진 전통 사찰이나 규모가 큰 절의 경우엔 매달 약사재일이나 관음재일 같은 날을 정하여 철야를 하며, 잘 알려진 것처럼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에서는 매달 초여드렛날 약사기도를 겸하여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는 갓바위 기도는 수험생을 둔 한국의 불자라면 안 해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다. 2018년도 지난달 양력1월24일 어김없이 선달 초여드레인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 성도재일이다.

인연 닿고 상환되는 신도분들 몇 분이 어김없이 동참을 했다. 그들 마음속의 간절한 인간사적 속세적 바람은 잠시 내려놓고 석가모니부처님처럼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해탈지와 열반락을 얻고자 하는 재가 자로서의 불도 성취에 마음을 쏟아 부는 시간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와 깨달음 그리하여 이고득락(離苦得樂)에 대한 간절한 발원을 담아보는 것이다.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겁생래를 거처며 견성성불에 대한 발심이 인연되었을 것이다.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법열(法悅)은 세속의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안다. 그러기에 이미 세속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졌던 당대의 많은 왕족, 귀족들은 물론 진리에 목마른 수많은 선지식들이 진리에 다다른 것이다. 출가자들은 출가자대로 재가자들은 재가자대로 분명 갈래에서 벗어나 무명을 깨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부처님의 성도재일에 너무나도 감사한 환희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세속의 생활에서 재가들에게 심줄가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되리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한의학 3대 명약 '경옥고' 효능은?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새해 목표로 금연, 다이어트, 운동,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건강관리다.

건강한 한해를 보내기 위해선 겨울철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겨울은 대기가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호흡기질환, 위장질환, 피부질환 등에 시달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모든 질환은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어 평소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나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능력이 탁월한 보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질과 증상, 앓고 있는 질환 및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처방받는 것인데, 만일 체질에 관계없이 가족 모두가 복용할 수 있는 보약을 원한다면 '경옥고(瓊玉膏)'가 가장 적합하다.

공진단, 우황청심환과 함께 한의학의 3대 명약으로 꼽히는 경옥고는 부족한 기와 혈을 보하는 보약 중 가장 효능이 뛰어나 한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준 선생도 높이 평가한 명약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근골(筋骨)을 튼튼히 하여 백가지 질병을 미리 막아주고 흰머리를 검게 하고, 빠진 치아를 다시 나게 하며, 기운이 넘쳐 걸음이 말리 달리는 것처럼 빨라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이 약을 다섯 제로 나누면 반신불수 환자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열 제로 나누면 노쇠 환자 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

경옥고는 1회의 고(膏)를 만드는데 상당 분량의 약재가 들고 만드는 과정도 까다로우며 그 어떤 보약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귀한 보약이다. 제조방법은 숙지황, 인삼, 백복령, 백밀을 고루 섞어

사기 향아리에 넣고 유지(油紙) 5겹과 두꺼운 천 1겹으로 향아리의 아가리를 봉한 다음 구리냄비 속에 넣어 수증(水中)에 매달아 향아리의 아가리는 물 위로 나오게 해 뽕나무 불로 3일 동안 끓여 내면 된다.

우리 몸은 기(氣)와 혈(血)로 이뤄져 있으며, 인삼은 보기(기를 보강하는) 약물의 대표적인 약재이고, 숙지황은 보혈(혈을 보충시켜주는) 작용이 뛰어난 약재다. 이처럼 경옥고는 인삼과 숙지황이 배합되어 기와 혈을 고르게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며, 특히 무기력증, 갱년기, 만성피로, 두통, 전신질환, 성욕감퇴, 체력저하, 병중병후인 경우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밖에도 출산 후 산후관리가 필요한 산모(수유 중 복용가능)나 성장촉진이 필요한 청소년,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이니 전문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복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SPC그룹, 설 맞이 사회공헌활동 진행

SPC그룹은 설을 맞아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9개 사업장과 인근 13개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SPC그룹 임직원 200여명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새해 인사와 떡국을 나누고, 자사 제품과 생필품을 후원했다. SPC그룹 임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을 맞아 만두 만들기 봉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SPC그룹



코스콤, 소외이웃 위해 배식 봉사활동

코스콤은 지난 7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영등포지역 장애인 및 경기도 안양지역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배식 봉사활동에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코스콤은 이날 신길동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과 경기도 안양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 어르신 500여 명에게 명절음식으로 갈비탕을 대접하는 한편, 떡과 쌀 등 설 선물도 전달했다. 이날 정지석 사장을 비롯한 코스콤 임직원 25명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명절 음식과 선물을 손수 전해주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했다. /코스콤



NH농협생명, 사랑의 쌀 선물 꾸러미 전달

NH농협생명은 지난 7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센터에서 사랑의 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강태호 전략총괄부사장과 농협생명 임직원, 중구지구봉사를 비롯하여 35명이 함께 했다. NH농협생명 강태호 전략총괄부사장(왼쪽부터 다섯 번째)이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쌀 선물 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협생명



하나생명, 사랑의 털모자 뜨기 캠페인

하나생명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털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하나생명의 대표적인 겨울 봉사활동으로 사내 봉사동호회인 더하기하나를 주축으로 7번째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임직원이 만든 털모자는 이달 말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 20사단에 발전기금 전달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7일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부대방문은 20사단 부대 창설기념일(2월9일)을 맞이해 하나금융투자 20사단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오른쪽)이 지난 7일 20사단 강인수 사단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숨은 일꾼 군인에게 격려를



기지수첩
오세성 (산업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이번 올림픽은 그 준비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산재한 여러 문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일은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사회가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한다.

우선 올림픽은 준비하며 강제 동원된 군인들의 처우가 지적됐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돼 꽃다운 청춘을 헌신한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존중받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민족을 수

호해야 할 이들은 동계올림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전장과 거리가 먼 평창으로 불러갔다. 혹자는 지원자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지원자가 없더라도 징집할 이들의 수는 정해져 있었기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근방에 복무하는 탓에 '제설' 따위를 이유로 강제 징집된 이들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이들을 '공짜 일꾼'으로 부렸다.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변천사 쇼트트랙 담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빙상 경기장 교체를 "벤쿠버와 소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올림픽에서는 하나의 빙상경기장에서 다양한 경기를 열기에 매년 경기장을 목적에 맞게 변경시키는 작업을 한다.

벤쿠버와 소치에서는 약 30분이 걸린 작업을 변 담당관은 "20분 안에 끝내겠다"고 말했고 얼마 후 SNS를 통해 '18분 내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 담당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땀 흘려

를 옮긴 것은 전문 인력도 자원봉사자도 아닌 징집된 병사들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안전을 도외시키고 혹사당한 셈이다.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열악한 안전 설비로 인해 20세 장병이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진 바 있다.

군 장병은 공짜 일꾼이라는 평창 조직위의 인식은 다른 곳에서도 엿보인다. 최근 민간안전요원들 사이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자 평창 조직위는 이들을 격려시킨 뒤 곧바로 '군 장병 90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뜰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강원도 지역 보병사단에서 병력을 거리낌 없이 동원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로부터 아쉬움을 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군 장병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올림픽이 향후 군 장병의 인권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sesung@metrosoul.co.kr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인민정실장 남평오 ◇국장급 △공직복무관리관 송경원 △성과관리정책관 민용식 △능률국토해양정책관 임상준 △안전환경정책관 정훈 △정무기획비서관 이정원 △민정인민비서관 이효진 △소통지원비서관 한경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윤순희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 민주당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덕근 △조사기획과장 심옥기
- ◆방위사업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방산기술통제관 김병부 ◇과장급 전보 △전차사업팀장 이동석 △창조조직인사담당관 홍미루 △운영지원과장 임영일 △과학화체계사업팀장 박영근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김태숙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카르텔조사국장 고병희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용수 △경쟁정책과장 송상민
- ◆한국은행 △정책보좌관 민자홍 △조사국장 이환석 △금융시장국장 이상형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신고심사심의관 김재수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장 허재우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용태
- ◆한국조폐공사 ◇하부기관장 △제지본부장 류진열 △기술연구원장 김홍조 ◇1급 전보 △사업처장 이건철 △조사실장 김영석 △제지본부 생산처장 강병욱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 유한신 ◇2급 승진 △제지본부 관리처장 최광연 △제지본부 생산조정실장 채희수 ◇2급 전보 △미래전략실장 박정배 △영업개발담당장 최성호 △스마트워크추진담당장 신학수 △화폐본부 관리처장 김태영 △화폐본부 주화처장 이철홍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김교찬 △화폐본부 검사실장 박경원 △ID본부 생산처장 장광호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권동원 △기술연구원 미래기술연구센터장 홍창석 ◇3급 승진 △재무팀장 구본창 △경영정보팀장 심종오 △홍보팀장 현원식 △전략제품개발팀장 박주열 △기술관리팀장 이근우 △품질경영팀장 김영식 △화폐본부 동력환경부장 조대연 △화폐본부 활판부장 조규근 △화폐본부 금형훈장부장 정윤철 △기술연

- 연구원 신제품연구팀장 김종희 ◇3급 전보 △경영관리팀장 문기호 △동반성장추진팀장 김충현 △ID사업팀장 이준선 △시스템사업팀장 김태안 △보안인쇄사업팀장 권영봉 △압인사업팀장 이봉상 △기술전략팀장 한만규 △경영감사팀장 이만희 △화폐본부 노사협력부장 유만재 △화폐본부 총무부장 김백락 △제지본부 관리부장 박재성 △제지본부 공동동력부장 차성철 △제지본부 검사부장 이병석 △ID본부 관리부장 천순희 △ID본부 생산관리부장 손만옥 △기술연구원 NID연구팀장 채중훈

부음

- ▲이화진씨 별세, 이세민(충북보건과학대 경찰행정과 교수)씨 부친상, 전정애(전 충북도 여성정책관)씨 시부상 = 7일 오후 1시 30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43-298-9200
- ▲문덕근 씨 별세, 문일(파크하얏트부산 세일즈마케팅 이사)씨 부친상 = 7일, 부산 수영구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11시 30분. 051-610-9009
- ▲김윤매씨 별세, 박병목(전 의성공교 교장)·병국·병갑·병용(전 VOA 서울지국장)씨 부친상, 양강남씨 장모상 = 안동병원(수상동) 장례식장 제2분향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안동추모공원. 054-840-0002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정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학종’은 안갯속 전형... “합격·불합격 근거 밝혀라”

(학생부종합전형)

**신뢰성·공정성 핵심문제 지적
“합불 분석 자료 있어야” 강조
서류 평가 기준도 추상적 ‘문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전형 방식의 불명확성과 입시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안갯속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학들이 학종 전형 결과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과 학종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교육부가 오는 8월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8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된 지난 10여년 전 도입때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전형으로 평가받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도의 명운을 가를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까지도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등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학종 도입 이후 학교 교실에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교

나 지역에 따라, 혹은 부모 경제력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문제와 전형 방식의 불투명성, 학종 전형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휘문고 우창영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배경받는 순간 ‘이 학교는 학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학종은 선수와 코치가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경기’라고 언급하고 “훌륭한 코치를 만나지 않으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학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산강서고 조진태 교사는 학종의 합불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이 학종 선발 과정과 결과를 매년 발표하

도록 학종 결과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사는 “대학의 인재상이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인지, 지원하는 수험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합불 예측이 힘들다”면서 “대학에서 인재 선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종 과정과 결과도 매년 발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험생들의 학생부 등 서류가 대동소이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3배수안의 학생들의 서류상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학생부를 ‘활동관찰 후 기록’과 ‘평가’로 분할하는 양식으로 개선해 대학이 정성적 판단과 함께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해고 박재현 교사는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하고, 떨어진 이유를 고등학교에 공유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라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평가 결과를 설명해줘야 한다. 설명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류평가점수라도 알려줘 고등학교에서 학종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교육대에 합격했다는 김모 군은 “학종은 교과성적이 낮은 계층 기회를 준 전형이고, 부담은 있었지만 저를 성장하게 해 줬다”면서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종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해 유불리가 나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군은 “특히 학종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맞춰야 하는게 힘들었다”면서 “학종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경제력의 영향력이 기존 전형보다 떨어지는 전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4~6등급대 중위권 수험생들을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서 학종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진태 교사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4~6등급대 학생들은 1,2학년때 희망을 갖고 진로에 따라 학종을 준비하지만, 3학년이 되면 내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절망한

뒤 불확실한 학종 대신 교과전형으로 선회해 지원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종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성모여고 3학년 박 모 양은 “학종에 대한 대학이 공개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평가기준을 알기 어렵다”면서 “학종의 필수요소인 학생부 기록도 학생들이 적어온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는 등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딸을 둔 학부모 강봉근 씨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 공교육 대신 사설 입시 컨설팅대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청이 대학들과 연계한 보다 상세한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도 학종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진행된 대입정책포럼에서 논의된 주제 중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4차 대입정책포럼을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장인 퇴사사유 연령대별 달라

20대 “급여때문에” 50대 “경영 악화 등 압박”

미디어월 남녀630명 설문조사 결과
구직활동 기간은 ‘3개월’ 가장 많아

벼룩시장구인구직 설문, 연령대별 퇴사 사유는?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가 연령대별로 달랐다. 20~30대는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8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을 운영하는 미디어월이 퇴사 경험이 있는 남녀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대의 퇴사 사유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28.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9%),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9.7%) 등으로 조사됐다.

30대의 경우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4.4%)라는 이유가 1순위로 꼽혔다.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7.4%),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1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 퇴사한 30대의 경우 여성이

88.6%로 압도적이었다.

40대와 50대 이상부터는 타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2%) 퇴사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8.3%) 퇴사 압박을 받아서(17.7%)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응답자는 경기침체,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압박(33.1%)이 퇴사 사유 1순위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8%), 휴식이 필요해서(2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인들은 퇴사 이후 3개월 이내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용산구 후암동과 성북구 성북동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8일 전했다. 사진은 후암동 골목길에서 재생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좁고 어두운 골목길, 활력 불어넣는다

서울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서울시가 좁고, 어둡고, 위험한 서울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골목길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 재생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점이다.

재생사업의 핵심은 골목길의 ▲역사문화적 숨길을 보존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며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한다. 일부 폐가를 활용해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 활성화와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같은 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 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착수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3월께 마무리하고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6월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재생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 한다.

시는 우선 용산구와 성북구 2곳 골목길

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각 지역별로 주민, 자치구,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 주민설명회, 심층면접, 객관적인 실태분석 등을 거쳐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같이 도시개발에서 제외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역들을 재생해서 슬럼화 되는 것을 막고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포함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도 3월 개최한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골목길이 자동차 중심으로 사라지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너비 4m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법령개선 등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골목길이 장터이자 놀이터이고 쉼터이자 주거공간인 모로코의 도시 페스처럼 서울의 골목길도 자연지형, 역사와 문화, 시민의 흥미로운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촉매제 역할을 적극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사람인HR, 잡코리아에 120억 합의금 지급

‘채용공고 무단복제’ 소송 중지부

사람인에이치알이 ‘채용공고 무단복제’ 소송 합의금으로 잡코리아에 120억원 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내 구인구직사이트를 대표하는 두 업체간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사람인 웹사이트에 공고 했다.

사람인은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 잡코리아 채용 정보 소스코드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취득한 후 이를 가공해 사람

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항후 이와 같은 복제와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 민사·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해 게시해왔으며,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과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해왔다.

양 사 소송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잡코리아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한용수 기자

“스마트팜 도전하세요” 청년창업 교육생 모집

정부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달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1기 교육생 60명을 모집 한다고 8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최대 1년 8개월에 걸쳐 전 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마켓] KB금융 '3조' 클럽 가입·1위 탈환 10



Life

[설 선물] 올 선물 트렌드는 '가심비'·'간편식' 12~15



30년만의 올림픽, 평창의 '기적'이 시작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평화' 주제로 올림픽 시작 알려 성화 점화방식·점화자 당일 공개

총 17일간 15개 종목 144명 출전 지난 올림픽보다 2배↑ 최대규모 금 8·은 4·동 8, 종합 4위 목표

전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9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한국 선수들은 흠에서 펼쳐지는 17일간의 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린다.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는 15개 종목에 306개 메달이 걸려있다. 참가국, 참가선수 규모도 역대 최대다.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는 이미 올림픽 열기로 뜨겁다. 선수촌 입촌을 마치고 훈련에 매진 중인 선수들은 평창올림픽의 시설, 식사에 대해 연일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8일 열린 사전경기에서는 기분 좋은 승전보가 울렸다. 평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종목에 입성한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에서는 장혜지-이기정 조가 대한민국의 첫 승을 안겼다.

◆평창에서 '평화'를...개막식 기대

평창올림픽은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의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의 주제는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다. 개막식을 총괄한 양정웅 감독은 강원도의 다섯 아이가 평화의 답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밝혔다.

한편의 '겨울



1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 북한 선수단의 공식 입촌식이 열린 8일,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마스크트인 수호랑과 손잡고 추치고 있다. 3 8일 오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1차전 한국 대 핀란드 경기에서 한국 이기정이 브룸으로 스윙하고 있다. 4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휴식일인 8일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을 찾아 오후마스크트 조형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화' 같은 개막식이 기대되는 가운데, 공연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된다. 한국 무용, 태권도 등을 이용한 공연은 물론 하현우, 볼빨간 사춘기, 전인권 등이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과의 결합은 개막식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특히 경기장이 아닌 행사전용시설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것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알려져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성화 최종 점화자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평창올림픽 점화대에서 화려한 불꽃을 피울 예정이다.

성화 점화 방식과 점화자는 개막식 최대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역대 올림픽에서도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로

이터 통신이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으나, 기대감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최종 점화자로 유력한 인물은 '피겨 여제' 김연아(은퇴)다. 역대 동계올림픽 성화의 점화자는 개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맡아왔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김연아를 빼놓으 생각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김연아의 단독 점화 대신 북한의 상징적 인물과 공동 점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회가 첫 남북 단일팀이 성사된 '평화 올림픽'이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이미 성화 점화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의 단독 점화일지, 남북 공동 점화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나올 확률도 있기에 개막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한국 국가대표, 주요 경기 일정은?

한국은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종합 4위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3위에 올랐으나, 이번 대회는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역대 최고의 성적을 쓰기에 좋은 기회다.

역대 한국이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올림픽 역시 한국에서 열린 1988년 서울올림픽(종합 4위)이었다. 개최국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가 출전한다는 점도 최고 성적 달성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이는 2010 밴쿠버 올림픽(5종목, 46명)의 3배, 2014 소치 올림픽(6종목, 71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메달 효자 종목을 비롯해 비인기 종목까지 경기를 놓쳐선 안 되는 이유다.

9일 첫 날에는 오전 8시 35분과 오후 1시 35분에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3, 4차전이 열리며,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45분에는 프리스타일스키(에어리얼) 여자모굴과 남자모굴 예선이 각각 열린다.

한국에서 '인기종목'으로 거듭난 피겨스케이팅 경기도 열린다. 오전 10시엔 팀이벤트 남자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차준환이 출전하고, 오전 11시 45분에는 페어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 김규은-감강찬 조가 나선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오는 10일 9시 10분부터 강원도 강릉의 관동하키센터에서 스위스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밖에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키점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 일정은 평창올림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그 포문이 열린다. 이제 한국은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8번째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뿐이다. 평창에서 펼쳐질 기적에 눈과 귀가 쏠린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